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Born Crucified

by L.E. Maxwell 지음
김영균 옮김

Born Crucified

by L.E. Maxwell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1999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지은이 | L. E. MAXWELL
옮긴이 | 김 영균

초판발행 | 1999. 11. 3.
2쇄발행 | 2008. 9.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엘림빌딩7층
전화 | 070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디자인 · 편집 | 박소현 dew0706@hanmail.net

ISBN 978-89-950621-3-4
ISBN 978-89-950621-1-8(세트)

정가 4,5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애정어린 마음과 더불어 바칩니다.

-L.E.Maxwell

Born Crucified



C O N T E N T S

추천의 글_6

감사의 글_7

저자 서문_8

| | |
|--------------------|------|
| 01 성도의 신원확인 | _11 |
| 02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1 | _19 |
| 03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2 | _27 |
| 04 십자가와 세상1 | _35 |
| 05 십자가와 세상2 | _42 |
| 06 십자가와 헌신 | _49 |
| 07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박힌 자 | _56 |
| 08 십자가와 자아 | _65 |
| 09 십자가-본성과는 반대됨 | _73 |
| 10 십자가와 두 본성1 | _84 |
| 11 십자가와 두 본성2 | _93 |
| 12 십자가와 육신 | _103 |

| | |
|-----------------|------|
| 13 십자가와 관계 | _117 |
| 14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1 | _124 |
| 15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2 | _135 |
| 16 십자가와 훈련1 | _145 |
| 17 십자가와 훈련2 | _157 |
| 18 십자가와 열매 맺기 | _166 |
| 19 매일 지는 십자가 | _177 |
| 20 십자가와 성취1 | _185 |
| 21 십자가와 성취2 | _193 |
| 22 십자가와 사탄 | _200 |
| 23 십자가와 왕의 지위 | _212 |
| 24 십자가와 왕관 | _219 |
| 25 십자가와 방법론 | _231 |

잘 절삭된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이 햇빛에 찬란한 색으로 반짝이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비취진 성경말씀 역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발한다. 신약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다수의 입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체험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지 이런 삶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삶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삶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사랑했으며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 “승리의 삶”등으로 묘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여러 종들을 통해 복된 메시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예를 들면 로렌스 형제, 윌리엄 로우, 허드슨 테일러, 한나 헛탈 스미스, 찰스 트럼벌 및 여러분들이 있다. 이 분들은 진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평안, 기쁨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인도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한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또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주일학교와 강단에서 선포되고 설교되는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실제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전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다름아닌 십자가의 길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과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진리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다. 캐나다의 알베르타 쓰리힐즈의 프레리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창설자인 맥스웰 목사는 지난 25년간의 사역을 바탕으로 바로 이 핵심적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지닌 분 이시다. 그분은 쉰데이스쿨 타임즈의 요청으로 1944년 초에 약 7주간에 걸쳐 일곱 편의 글을 쓴 바 있었다. 그 글에 일부를 더 보충하여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손에 오게 된 것이다.

본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맥스웰 목사는 성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여러 예화를 통해 그 진리를 잘 조명해 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으며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처럼 차지도 답지도 않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불법이 판을 치고 무질서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갈 바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꼭 배우시기를 바란다.

우선 본서의 저자로서 선데이 스쿨 타임즈(Sunday School Times)의 편집장이신 필립 하워드 주니어(Philip E. Howard Jr.) 씨에게 특별히 많은 은혜를 입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신문에 글을 연재하도록 처음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본서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책의 형태로 준비하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워드씨는 선데이 스쿨 타임즈(Sunday School Times)에 실렸던 글들을 본서에 다시 실릴 수 있도록 매우 커다란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저자는 또한 여러 저자들과 출판사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분들의 저작물로부터 참고자료를 발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판사 중에는 the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에이미 카마이클의 여러 가지 책), Christian Publication, Inc.(J.Gregory Mantle의 저서인 The Way of the Cross, 현재는 절판되었음), Zondervan Publishing House, Marshall, Morgan and Scott, Ltd.,(F.J. Huegel, Dr. Ernest Gordon, Dr. Samuel Zwemer의 저서들), the Moody Press(A. J. Gordon의 저서인 The Two-Fold Life, 현재는 절판됨), William R. Newell의 로마서에서의 일부, the China Inland Mission(The Growth of a Soul), Harper Brothers(Dr. R. H. Glover의 저서 The Progress of Worldwide Mission)등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마담 기욤(Madame Guyon), 게르하르트 터 스티겐(Gerhard Ter Steegen), 찰스 시몬(Charles Simeon), 윌리엄 로우(William Law),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비숍 모울(Bishop Moule), 펜 루이스(Penn-Lewis), 오스왈드 챔버(Oswald Chambers) 및 기타 여러분들의 책에서(이분들은 모두 위대한 성도들이었다) 짧은 글들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깊은 진리에 있어 영적 지도자들의 글에 너무도 익숙해 있는 관계로 때로는 글자 그대로 인용한 것들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들의 글들을 함당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든가 저자 혹은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도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고 말한 사람은 프랑스의 설교자 라코데르(Lacordaire)였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의 모든 지체들이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 안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서 역시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장황한 논문이나 신학적 서설로서가 아니라 간단한 설교나 권고의 글의 형식을 빌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는 다 읽기도 전에 저자는 “사람들이 죽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 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기라도 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바로 그러한 죽음 즉 자아에 대한 복된 죽음이 있고 나서야 부활이 따라온다. 이것은 밤이 지나면 낮이 밝아오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이치이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 선교사들이 이 십자가의 가르침만 배운다면 선교지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십자가야말로 성경 전체에서는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핵심인 것이다. 만약 내가 이 핵심을 놓친다면 나는 성경을 깨닫는 과정에는 물론이고 내 인생을 사는 중에도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만약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의지했던 것만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현대주의적 불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위 “목이 잘린 복음”이라고 불려진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십자가에 너무도 깊이 연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십자가에 의해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신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모순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안에서 그가 지니고 있는 위치상으로도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본서의 여러 부분들이 급히 서둘러 준비되었고 더군다나 엄청난 압력 하에 기록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 있어 영광을 받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 드리는 바이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갈보리의 주님이신, 예수여
이 책을 상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당신의 계명대로 보내소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땅의 먼지에 불과하나 주여 당신의 먼지니이다.
당신의 손에서는 풀로 된 날이라도
칼이 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당신이 정화시키고
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

chapter 01 성도의 신원확인

남북전쟁 당시 조지

위야트라는 사람이 전선으로 소집을 당했다. 그는 아내와 여섯 자녀를 둔 상태였다. 그래서 리차드 프랫이라는 청년이 그 사람 대신 가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조지 위야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군대에 합류하였다. 얼마 후 이 청년은 전사했다. 당국은 후일 조지 위야트를 다시 소집하였다. 그러자 위야트 씨는 자신은 프랫이라는 사람으로 이미 죽었음을 알리고 항의하였다. 그는 자기를 대신했던 프랫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사한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다. 당국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야트 씨는 군복무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이는 그가 그를 대신했던 사람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군법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잘 조명해 주고 있다. 하

나눔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출하시는 방법 역시 죽음을 통해서이다. 즉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진리(롬5장)를 증거한 후 계속해서 우리를 로마서 6장으로 안내한다. 이 곳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신원확인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발견됨을 제시한다. 로마서 5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복음의 기초요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즉시 그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칭의가 단순한 형식적 혹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물론 칭의는 본질적으로 법적인 문제이다) 여기에는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만은 아니다. 그 순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심오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연합을 무시한 칭의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즉 그분의 대속(속죄)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생명의 연합관계로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라고 롬5:20에서 바울이 선언하자 이에 대해 롬6:1의 질문이 등장한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절대적인 부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롬 5장의 우리의 칭의) 우리의 위치는 “그분 안에서” 죽은 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고후5:14)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두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가피하게 모두의 죽음을 포함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이 얼마나 서로 모순된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은 필연적으로 그분과 함께 죽은 나의 죽음을 동반한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룩하신 그 사역의 근본 성격은 이와 같이 단번에 완전히 성취된 속죄의 양면을 지니게 된다.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두 측면을 분리시킨 십자가와 목이 잘린 복음”이라 불리는 왜곡된 모습을 지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방법 외에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를 자신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 이로써 나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나의 법적인 위치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분의 죽음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죽음은 곧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옛 아담의 나무로부터 잘라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 안에서 그분께로 연합된다. 믿는 자로서 내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박힌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은 무슨 심오한 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다. 한 옛 신학자가 말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박혀서 태어난 것이다”(즉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박혀 버렸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고 고뇌한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해 보았겠지만 모든 것이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실패와 패배를 이겨 보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계명들은 당신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당신은 그 계명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은 주 예수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세워 놓으신 기준과는 전혀 모순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어쩌면 당신은 구세주께서 어째서 그러한 요구들을 하셨을까 의아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명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괴롭히고 고문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문제

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워하며, 회개를 하더라도 당신의 영적 투쟁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그리스도의 요구사항은 성취될 수가 없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초월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그분을 모방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당신의 무능력을 잘 알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 그분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육신이 달성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놀랄 일인 반면 동시에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도대체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박해를 기뻐할 수 있으며, 자신을 미워할 수 있으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본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요구사항 앞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요구사항과 인간의 능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놓여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F. J. Huegel은 그의 책 “그분의 뼈의 뼈”(Bone of His Bone)에서 우리의 실패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잘못된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는(모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참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벧후1:4).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적으로 우리 삶에 참여시키려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란 면모에서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쥘리 위야트씨는 군법과 맞서 싸우거나 당국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서 전쟁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다. 그는 정부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의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군대를 면제 받았다. 즉 그는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이미 전쟁에서 전사하였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역시 나를 대신하시고 대리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께서는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셔서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갈2:20a) 이것은 위대한 사실이다. 내 쪽에서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께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요 따라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분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삶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이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뿐이다.

한 옛 선교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배의 삶을 살았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에 닿았다.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서 사신다고?” 그는 외쳤다. 그는 철저한 장로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 경충경충 뛰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단말이야!”라고 외쳐댔다.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옛 삶 즉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해방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은 모든 필요를 채우고,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이다. 이것이 감정이나 걱정으로 흥분된 삶과 혼동되어서는 안되

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든 기쁨과 평안이 믿음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오도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선구자의 체험은 이 진리를 잘 조명해 준다. 그는 자신의 혼에 더 많은 능력을 얻고, 더 많은 생명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 수개월간 고뇌가운데 투쟁하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실하신 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맛보는 안식일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실 수 있음과 그분의 뜻이 곧 내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쉬운 곳에 두셔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으신다면 그분께서는 훨씬 더 나를 잘 인도하셔야만 하지 않는가? 어려운 처지에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압력과 시련가운데 놓일 경우에는 크신 능력을 주셔야만 한다. 사역에 관해서도 나의 일은 너무도 많고, 어렵고, 책임은 산더미처럼 늘었어도 나의 짐과 긴장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eness)에서 나온다.

나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받아들이네.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젠 한 생명뿐이니

당신께서 주신 그 한 생명뿐이라네.

- 루시 베넷(Lucy A. Bennett)



chapter 02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 1

한 사병이 상관에게

“제가 포로를 잡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 그의 상관은 그에게 “포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그가 안 오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장교는 “그렇다면 너만 오라”고 다시 명령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하거든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에 대해 승리한 삶의 모습이 고작 이 병사와 같은 꼴이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죄의 능력(권능)으로부터는 어떠한가? 실제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칭의라고 하는 진리 주변을 맴돌면서 마냥 서성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만 흥

얼대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칭의만 쟁취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전한 수준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의롭다고 선포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의롭게 된 후에는 우리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불안하고 동요하는 양심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우리를 자주 괴롭히곤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법적인 위치를 내세워 이미 의롭게 된 사실에 만족해하곤 한다. 우리는 이미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시라”**(요일2:1)는 말씀을 잘못 사용해왔고 또 남용해 왔다(물론 이 말씀 자체는 복된 진리임이 틀림없다).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진부하고 패배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 즉 상습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이미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모든 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포로를 사로잡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악 된 삶을 순종에게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때 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 혼자만이라도 오라” 그러나 내주하고 있는 죄악 된 자아는 “나를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도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A.J.고든 박사의 현명한 충고를 묵상하도록 제안한다.

『성경에 제시된 영적 진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 주장 사이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죄 없는 완벽한 삶이라는 교리를 이단이라고 부른다면 죄로 물든 불완전한 삶에 만족하는 것은 더 큰 이단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요일1:8)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화의 가능성을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습관적인 불경건함에 대해 “기분 좋게” 만족하고 있으면서 성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된다. 그리스도인 완벽주의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것은 결코 믿음을 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롬6:1)

혹시 독자 여러분 자신은 포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자아와 내주하고 있는 죄의 희생물 즉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가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며 모든 일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바울처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롬7:19)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당신은 깨어 기도했다. 당신은 죄와 싸웠고 자아와 투쟁도 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사실에 여러 번 울었다. 어쩌면 당신은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고 “복을 얻기 위해” “밤새” 기도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내적인 악에 대해 불쾌해했고, 부끄러워했으며 몰래 울었던가! 그러나 이러한 고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결심들은 한 가닥 가느다란 끈처럼 끊어지고 마는 것을 수차 경험했을 것이다. 자아는 결코 자아를 내쫓을 수 없다. 당신은 이제 죄에 대한 싸움에서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있다. 심지어는 당신의 믿음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죄를 포로로 “잡고자 할 때”, 그리하여 그를 데려와 감옥에 넣고 그의 자유를 제거하고자 할 때 당신은 실상은 당신 자신이 포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죄와 자아는 당신의 삶 전체에 있어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뇌스러운 패배인가? 자아의 노력은 실로 어리석고 무용하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게 된다. 믿음은 종종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는 법이다.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게 죄악 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을 찢는 고백을 할 것이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

*하나님께서서는 계단이 없는 망대이시요,
그분의 완전함은 절망을 사랑하네.*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것이다. 제임스 맥온키(James H. McEonkey)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기초를 깊은 곳에 놓으신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죽음이라는 깊은 곳에 놓여 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르치실 때 단 한 문장(간단하고, 충격적이며, 생생한 문장), “죄에게 죽었음”으로 하신다.』

로마서 6장에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죽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죄에 대하여 죽은”(2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니”(10절),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11절). 우리는 10절에서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for sins) 죽으신 것뿐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unto sin) 죽으셨음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고후5:21)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철저히 요구하셨다. 그 형벌은 다름아닌 사형이었다. 죽음으로 죄의 능력과 형벌은 끝이 난 것이다. 죄의 능력도 죄의 요구도 죽음과 더불어 끝나 버린 것이다. 이에 바울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롬 6:14)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게 죽으셨다. 이제 그분께서는 죄가 손댈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살고 계신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롬6:1-3).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고 말하거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죄에게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바를 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게 죽

었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다시 말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분과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그렇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내 죄의 대가를 담당할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분과 일치되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자신과 함께 죽음 안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분의 죽음은 곧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된 것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데려가셨다가 죄의 지배가 미칠 수 없고 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셨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기초이다. 성령께서는 당신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그분께 묶으신 채로(즉 너의 인성 안에 놓이셔서) 나를 죽음으로 데리고 갔고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로움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 위대한 사실, 즉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사실로 여겨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6:11). 바울은 죄가 당신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유의하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방법은 죄악 된 욕망을 억제함으로써가 아니고, 옛 성품을 제거함으로써도 아니며, 원죄를 깨끗이 씻으심으로써도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십자가에 못박음 즉 죽음을 통해서이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는 것과 죄가 나에게 죽었다고 여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신의 노력, 투쟁, 혹은 축복, 믿어 보려는 마음 등을 통해 죄가 나에게 죽은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성

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죄로부터 해방 받고자 한다면 당신의 실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당신이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라.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죄에게 죽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결코 감정을 염려하지 말라. 어떤 특정한 죄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그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이 세상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만약 교만 즉 자만이 다가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고후 5:14)는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이기적인 교만과 자만심과 스스로를 높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두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파티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주에 이미 죽었거든요”. 바로 이것이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대답해야만 한다. 두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 주에 침례로 신앙을 간증했었다. 그들은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 사람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윌리엄 황제는 독일계 미국인의 알현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황제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이 미국으로 귀화했으면 미국인이 된 것이다. 나는 미국인도 알고, 독일인도 알지만 나는 독일계 미국인은 모른다”라고 선언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나도 한때는 그리스도안에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십자가가 나를 죽여 옛 시민권과 생활로부터 나를 잘라 내버린 것이다. 나는

아담-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신분을 지닌 채 나의 왕 되신 분을 알현하려고 하면 그분은 거절하신다. 이런 상태로는 옛 사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받을 수 없다.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신분을 더는 집어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존재임을 선포하자.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롬6:11)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도록 하자.



chapter
03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2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죄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마땅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말고는 실로 죽은 사람인 것이다. 그분께서는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 나는 “죄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 죽어야만”하는 존재이다. 나는 아담 안에서는 잃어버려진 존재이며 “죄 가운데서” 죽은 자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내 죄를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맡겨진 인생인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나는 수치스러운 도덕적 모순 가운데 빠진 것이다. 나의 논리적인 위치는 죽음의 위치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일도 아니고 법적인 픽션도 아니다. 나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모든 진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 사실도 나의 마음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진리는 더 이상 냉랭하고 생명이 없이 그저 그렇다는 “가정”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아멘”을 요구하는 진리이다. 내가 그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여김”은 단순히 믿는 척 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은 사실을 믿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여김”은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한다.

“여김”(reckon)이 실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self-renunciation)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여김은 만약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으로 나의 옛 삶을 포기해야 한다. 갈보리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나의 자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추악한 괴물인 자아에 의해 지배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느냐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그 중심부에 “그러나 내가 아니요”라는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 내 길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아는 왕좌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나는 실로 생명의 새로움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옛 생명을 벗어버린다는 근거 하에 가능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하는 심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면 나도 나의 옛 자아를 그분의 비참한 상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한다. 사무엘 러더포드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손을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종과 결의에 찬 아멘을 받으시도록” 하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주로 가족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사역(Home missions)도 좋고 해외선교(Foreign missions)는 더 좋지만 순복(submissions)은 가장 좋다(해외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훈련이다). 남편의 엄청난 성질에 순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여자들도 있고 아내들의 바가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는 남자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핸디캡이나 약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를 얻는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이 실제적인 복종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때 우리의 자아는 포기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포기 없이 “여기는

것”은 그저 믿는 체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다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더욱 스스로 애쓰는 것이니 아무 것도 아니다.

“여김”은 또한 죄의 거부를 포함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여기라”.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말대로 우리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고 죽음을 통과하여 죄의 지배 저쪽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죄가 군림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한층 더 없는 것이다. 죄는 그리스도와(십자가에 못박히신 분) 연합된 자들 위에는 요구사항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자들 위에는 “군림할 수”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롬8:2).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어떤 논쟁이라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다.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경 역시 확고하다. “실족하는” 지체는 사망에 처해져야 한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심지어는 이를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을 위해 울부짖는 것은 실로 좋은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 그리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식의 행동은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끊으셨다. 그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는 네가 죄와 관계를 끊을 차례니 죄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전부터 나는 내 자신을 낮추고 “공개적인 수치”에 내 자신을 맡겨야 했었는가? 나의 가족, 나의 직장동료, 혹은 나의 주

일학교 수업, 혹은 나의 교회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아무도 불쾌하게 하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나로 그분께 복종케 하시기 위해 나에게 간청하신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해서 무시당하셨고, 자원해서 내게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모든 교만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경멸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를 낮추도록 하자. 만약 내가 내 죄를 수치스러운 위치에 놓지 않는다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갈보리의 능력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나는 십자가와 아무런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셈이다. 죄의 고백은 죄의 거부를 의미한다. 우리가 십자가와 조화를 이룰 때만이 죄의 능력은 부서진다. 그러나 십자가는 숨기는 곳이나 죄를 덮어버리는 곳이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와 관계를 끊고 죄를 드러내는 곳이며, 죄책을 담당하는 곳이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장소이다.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십자가의 모든 결과를 따르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자 죽으셨다면 죄를 붙들고 있기보다는 죽는 편이 낫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를 제거할 만큼 죄에 대해 충분히 싫증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싫증”이 날 때까지, 죄에 굴복하고, 피 흘리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꺾안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록하지 못한 표리부동함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하며 이중적인 마음을 내던져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질투가 많으신 연인이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해방 받기를 원하신

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생성된 능력을 당신이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수치와 절망으로 몰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은 주님의 이러한 교훈을 순종을 통해 그분의 친절로 배우든지, 불순종으로 인해 그분의 징계에 의해 배우든지 간에 어쨌든 배워야만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칼이 당신을 죄와 자아에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하나하나 끊으실 것이다. 부, 건강, 친구 등도 당신으로부터 그 칼에 의해 끊어져 나갈지도 모른다. 당신의 내적인 자아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당신의 기쁨도 떠나가 버릴 것이다. 안팎으로 얻어맞고, 깎이고, 불타고, 분쇄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은 “무시무시한 침례” 가운데서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지도 모른다. 그때서야 당신은 비로소 갈보리의 십자가의 “승리와 파멸”에게 자아를 내어놓을 준비가 될 것이다(‘준비가 되다’ 혹은 ‘각오가 되다’라는 표현이야말로 복된 말이 아닐 수 없다. - 이것은 어쩌면 “달콤한 강요”일 것이다). 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능력이여!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대항하여 지탱할 수 있겠는가? 갈보리에서 생성된 모든 능력이 이제 당신의 손안에 놓여있게 된 것이다.

헤겔(F. J. Huegel)은 그의 책 “그의 뼈 중의 뼈”(Bone of His Bone)에서 라둡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소(실험실)에 고용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이상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일터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들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자 1만 달러씩을 보상으로 받고 그 실험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의사들은 라둡과 접촉하며 일했던 소녀들을 검사했는데, 생명을 소멸시키는 이상한 불이 그들의 뼈에서 불타고 있음을 X선을 통해 발견하였다. 이 엄청나게 집중된 힘이 그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집중된 힘이 갈보리에서 발생했다. 저 하늘의 라돔이 인간의 죄와 수치라고 하는 커다란 암덩어리 위에 집중되었다. 라돔은 죽이는 일을 한다. 하늘 아래 이 집중된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없다. “십자가는 죽이는 일을 한다. 자신을 갈보리에 노출시킨 사람은 곧바로 숨겨진 어떤 불이 그의 뼈 안에서 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힘에 대해 내 편에서 제한을 두지 말도록 하자. 죽음을 다루고, 생명을 주며 치료하는 광선이 나의 가장 은밀한 삶에 침투하여서 그 숨겨진 불이 나의 가장 깊은 존재의 모든 뼈들 안에서 타오르도록 한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라돔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적용되도록 하자. 이것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치료법에 내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되고 가식적인 자아에 진실로 지쳤다면 - 만약 나의 마음이 해방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다면 - 나의 혼이 생명수의 샘을 마시고자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면, 갈보리의 충만한 메시지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당신에게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거듭 거듭 말하노니 나는 십자가에 못박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못박혀 있고 더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 안에서도 그분이 사신다) 그분께서 부활의 삶(자신의 죽음),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은
그분의 죽음으로 내 것으로
여겨진다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라네.



chapter 04 십자가와 세상1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는

옛 고대 세계가 십자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요약하였다. “십자가를 로마 시민의 존재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그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처럼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는 아무런 영광의 후광도, 아름다운 역사적 연관성도, 영웅적인 희생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어떠한가? 아무나 십자가를 들먹거리는 세상이 아닌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그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20세기 말을 맞이한 오늘날도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일 뿐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극심한 수치와 경멸의 장소가 되기를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셈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당시 제자들은 범죄자, 살인자, 반역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형틀로 행렬을 벌이며 가는 것을 자주 바라다보았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처형)은 너무도 악명 높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기에 옛 시대에 십자가에 대한 보편적이고 깊은 혐오감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 결정적인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갈3:13). 이 말씀은 십자가의 치욕(offence)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 극에 달한 증오심을 가차없이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 교만한 세상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겉으로 단번에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이며,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놓아보아라! 이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외쳐댔다.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요19:15). 친구여, 속지 말라. 비록 비수가 이 세상의 옷 밑에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비수는 여전히 있는 것이다.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한 시대 혹은 한 혼, 혹은 한 그룹의 영성을 참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세상’이란 단어에 대해 얼마만한 혐오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D.M. Panton)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이다.

“세상”이란 단어를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요12:31)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행로(course)”(엡2:2)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신”(고후4:4)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과 반대(원수)되고(고전 2:12), 이 “세상의 형체”(fashion)는 사라져 간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았다.”(고전 2:8).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일2:15)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세상은 이때 자연인의 삶과 그 전체 과정을 말한다. 이 마지막 표현 즉 “세상에 있는 것들”(things)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이 책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은 혹시 단 한 가지라도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물건은 무엇인가? 당신은 아마 젊은이들이 춤과 쇼와, 연극을 사랑하는 것을 비난할지 모른다. 물론 이는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어떠한가? 정치, 예술, 과학, 돈, 야망, 사회적 인정, 혹은 사업에서의 영향력 등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은 젊은이, 중년, 그리고 노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에게 치명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야망, 열정, 자랑, 인기, 쾌락 그 밖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십자가와 모순되며 “아버지의 사랑”을 배제한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라든가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세 가지 뿌리를 정의 내리고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전설에 등장하는 세 개의 금사와 이야기처럼 우리를 미혹한다(아틀란타는 이에 미혹되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요일2:16). 이기적인 사람

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욕망(정욕)으로 인해 만족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24). 그러나 십자가와는 무관하며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정과 욕심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영이 어찌나 교활하고 속임수에 뛰어난지 자연적으로 타고난 지성으로는 그것을 포착해 낼 수가 없다. 그것은 너무도 유혹적인 마술 같고, 마법같이,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다. 이 세상적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종교 생활의 체질 깊숙이 그 암세포의 뿌리를 심어 놓았다. 그것은 마치 치명적인 문둥병과도 같아서, 고통을 동반하지 않아 환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뼈를 갉아먹는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집의 뼈대를 먹어 치워 버릴 하얀 개미와 같다. 그것은 바로 지성 숭배주의의 온상이요, 현대주의의 시녀이다. 그것은 속에서부터 도려 나오는 스파이로서 십자가의 영을 쫓아내 버려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레고리 맨틀(J. Gregory Mantle)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천연 자석인 한 산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은 엄청난 흡인력을 가지고서 그 영향력 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쇠조각을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지역의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은 닻과 체인 그리고 쇠로 된 막대기들이 이끌리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산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 정도의 기울어짐을 느끼는 정도였습

니다. 그러더니 그 흡인력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배는 엄청난 속도를 내며 산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배의 모든 볼트와 못이 배의 기둥과 갑판에서 빠져나가 산에 달라붙고 말았고 결국 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바위로 이끌고 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파괴하는 교묘한 형태의 세상적인 것들 몇 가지를 제시해보도록 하자. 우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있다. 그들이 찡그린 모습은 두렵다. 그 반면에 그들의 호의와 아침은 얼마나 달콤한지! “시간을 사서 얻는” 대신 보잘것없는 취미에 허비해 버리는 부당한 시간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휴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도 있는 그때에 세상 뉴스에 느슨한 마음을 지닌 채로 동참하는 우리의 느긋함.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로서 고난을 견뎌 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의 부드럽고 작은 “세상”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저녁 늦게 야식을 먹으며 허영에 찬 농담을 늘어놓고 싶은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채로 세상을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내적인 세속성 때문이다.

-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선택으로 결정해 버리는 많은 것들.

- 우리는 성경적 원칙이 아닌 대중의 의견, 혹은 어쩌면 종교적 의견에 의해 얼마나 지배를 받고 있는지!
-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것 저것을 용납해 버리는지!(비록 그것이 악의가 없거나 혹은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쉽게 틈을 탈 수가 있게 된다.
-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특전으로 여기기는커녕 얼마나 기피하는지!
- 뭔가 세상적인 평안함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만족감을 우리는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있는지!
- 우리는 좋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꺼려하는지!
- 우리는 괴짜로 보이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행에 무릎을 꿇는지! 그 스타일이 합리적이거나 옳거나 품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유행이기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그런데 종종 유행은 비합리적이고 품위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너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르게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품위 없이 보이기를 원한다. 욕망이라는 옛 임금이 “그것을 하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채찍이 무서워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할 때까지는 거짓 교리, 현대주의적인 사역, 가련한 교회 치리, 혹은 교회 안에서의 부패한 관행들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영적 파산의 모든 뿌리는 세상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윌리

업 로우(William Law)는 이렇게 잘 표현하였다.

『이단들 중의 이단은 세상적인 영이다. 오늘날 기독교회들의 타락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나는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영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다.』

chapter 05 십자가와 세상2

나는 한때 이

세상 깊은 곳에 빠져 정죄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세주를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 많은 물들로부터 나를 끄집어 내셨다.”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시사 -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욥2:3) - 우리를 악한 현 세상(갈 1:4)에서 “구출(구원, 구조)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더하여 더 큰 승리가 요구된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그 바다를 떨어 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승리는, 구조된 자들이 다른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리냄을 받은 승리를 쟁취한 후,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불결한 요소들을 떨쳐버리는 승리를 쟁취한 후에는 이 세상의 구렁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구

조하기 위해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승리야말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승리이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정처럼 맑아야 함이 전제된다.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 당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박혔고 세상 또한 우리에게 못박혔다. 십자가에 못박힌 제자와 십자가에 못박힌 세상 사이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리가 먼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늘 왕좌가 지옥의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듯이 늑대들의 무리 속에 있는 양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 비뚤어지고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6절) 것으로 말씀하셨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며(14절),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으며”(15절),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져 있으며(11절), “이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졌고”(18, 20절), 그 결과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으며”(14절) 살고 있는 자들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마지막 사항 즉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는”이란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은 “너희”(당신과 나를)를 미워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 세상의 증오심을 축소시키지 말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세상은 당신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당신을 심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치가 사방에서 당신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도의 표시이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딤후3:12) 것이다. 우리를 “박해에 대해 병적인 욕망”을 지닌 자들이라든가 “스스로 만들어낸” 순교를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결코 그런 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치욕이 중단된 것은 분명, 그들의 삶이 너무도 세상과 쉽게 타협한 나머지 그들의 생활이나 증거에 대해 이 세상이 더는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와 세상은 삼손과 드릴라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관계에 있을 뿐이다.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
서로 손에 손잡고 가까이서 살아가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외에 그 누구도
이 둘을 구별할 수 없다네.*

구세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질책하는 표현 중의 하나는 그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것은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냐”**(요7:7)이다. 만약 내가 이 세상과 너무도 가까이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영광 분위기를 너무도 쉽게 포용하여 더는 세상을 책망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세상의 증오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세상이 내 안에

서 나를 미워하여 그들의 무리에서 나를 쫓아내 버릴 구실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요, 그분의 친구들의 집에서 그분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다. 그분을 나무에 못박은 세상에 내가 이처럼 밀접하게 다가섰다는 말이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 외에는 달리 쓸모가 없다고 여겨야 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어가는 저주 받은 범죄자로부터 미소를 기대하고 찾아내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박힌 이 세상의 호의를 더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친구들의 비밀 결사에 입회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 그분과 함께 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 종교, 문화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 이것들은 이 세상이 실재(Reality)를 정죄하기 위해 그 기준으로 세운 인위적인 고안물들이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그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왕국을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환심을 내던지고 세상의 상식을 저버리게 된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있는 반역자는 지혜롭게 다루고 바보들은 용납해 준다. 그렇게 되면 무지, 게으름, 비겁함이 우리를 ‘느긋하게’ 정죄하게 된다.』(S.M. Zwemer가 The Glory of the Cross에서 James Cordilier로부터 인용한 것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던 지난 세대의 영적 스승들 중 한 분인 고든

(Dr. A. J. Gordon)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침입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귀화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웃들을 당혹감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반면 양심에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들 자신의 피에 대해 꽤넘치 않았고, 어린양의 피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였다. 그들이 기거하는 나라의 풍속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들이 귀화한 그 하늘나라의 생활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의 도움, 통치자들의 성원, 세상으로부터의 빛, 세상적인 방법의 사용 등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이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들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배반할까 함이었다. 이 “침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지로부터 병참 지원을 받았고, 로마제국이 제공하는 도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대장의 지도력을 훨씬 더 신뢰하였다. 이 사실은 이방인(이교도)들을 너무나 화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사실 이들은 그들의 잡신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던 자들이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구가했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놀만(H.B. Norkman)교수는 로마 제국 하의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기독교 초기 시대 약 2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의 포기를 수반했다. 멸시 받고 박해 받는 이단 종파에 가입하는 행위였으며, 인기 있는 세상 물건을 거슬러 수영하는 행위였다. 로마 제국의 금기사항이었고, 어느 순간이든지 투옥과 죽음이 가혹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였다.』

초기 200년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혹독하기 그지 없었다.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다. 처음 200년 동안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해 선포되는 말이었고 그 선언 하나면 정죄 받기에 족했다. 그 선언이 내려진 사람은 변명의 기회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터툴리안에 따르면 대중의 증오는 단 한가지만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범죄에 대한 책임 여부의 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었다.

*이처럼 사나운 이리들의 증오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움츠린 양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도다.*

로마인, 헬라인, 혹은 이방인들은 다같이 “첫 번째 종족”이라고 불린 반면 유대인들은 이와는 달리 “두 번째 종족”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도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박탈

당한 채”, 이 세상의 영광 분위기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이 세상과는 너무도 대조적이고 비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았기에 “제 3의 종족”이라고 낙인이 찍혔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호를 기꺼이 수용하였다.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었다. 이교도들이여, 마음껏 떠들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 모든 세상과는 끊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제 3의 종족을 내버려두어야 하겠는가?” 라고 외쳐댔던 것이다. (카르타고의 한 서커스의 대사를 인용하였음)

이러한 승리의 간증(비타협에 의해 쟁취한 것임)이 가져올 결과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오늘날 교회는 저 순교자들의 화형 때 타오르는 불길을 견딜 수가 없다. “그 빛나고 불타는 불빛”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오, 인기에 영합하는 크리스천이여! 오, 세상적으로 똑똑한 설교자들이여!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이 세상과 함께 멀리까지 나아갔는지 잘 확인해 보라. 교회는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찌해서 것처럼 이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채, 다시 그 가라앉은 로마제국 안으로 뛰어들어 그 제국을 뿌리째 뽑아내서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당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터툴리안의 기록 그대로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들로서 이러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hapter 06 십자가와 헌신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밋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맏지어다”**
(시118:27).

본서의 저자는 한 젊은 사역자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려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진지하게 헌신을 하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드디어 그는 자신에게 헌신의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는 제사장들의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린 피를 보고 제사장이 온통 피 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는 “죄가

되신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연합을 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온통 죽음으로 뒤덮여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갈보리 사건이 그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운명과 죽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과 하나 된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와 죽음과 삶을 통한 연합을 이루게 된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고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체험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속뜻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훌륭한 교회들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칭의를 가르친 후 곧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제시된 헌신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놀라운 조명을 제시하는 로마서 6-8장 사이의 가르침을 간과한다는 것은, 헌신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이 중요한 진리들을 간과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젊은 사역자들은 많은 세월을 비참하게 보내게 되었다. 그는 죄성으로 가득한 자아에 대한 승리의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제단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 놓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그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즉 그는 이미 십자가에 못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으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살아 있게” 되었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그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내었고 실로 큰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더 하겠다.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에서 전사자 묘지를 봉헌하며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바친 분들의 영원한 안식처로서 이 들판의 일부를 바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봉헌할 수도 없고, 성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싸웠던 용감한 분들, 이분들 중에서 살아 계신 분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된 분도 있을 터인데, 바로 이분들이 이 땅을 이미 성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더하거나 뺄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과업을 온 힘을 다해 완성해야 할 것이며 그분들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이미 구속된 생명인 “이 땅을 봉헌하거나, 성별하거나 거룩케 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께서 자신이 내놓으신 그 생명 안에서 이미 우리를 봉헌하셨기에 우리는 더는 더하거나 뺄 능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도록 하자.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복된 진리

들은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헌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근거 위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제시된 헌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완전히 구속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무한하고 풍성한 자비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산 희생물로 바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번제 헌물이신 그분 위에 우리의 손을 얹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그리고 완전한 희생 제물의 달콤한 향기이며 “우리로서는 이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얼마나 놀라운 확신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평화인가! 그분은 불에 의해 드러지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헌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번제 헌물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 불태워지는 달콤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단 말인가? 그분께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오, 주저하는 성도들이여, 어서 와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생 동안 그분께 내맡겨 드리자. 어서 와 그분께 모든 걸 드리도록 하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기꺼이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고난의 시기에 난관을 헤쳐가는 자들은 위대한 왕이신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 “주여, 당신의 명령대로 당신을 섬기오니 받아 주소서” 조지 헛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되려고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노라. 나는 무조건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서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나를 완전히 위탁하노라”.

과거에 일제는 일본의 신도교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안이숙 여사를 부르셔서, 일본 국회에 가서 이에 대해 일본에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무려 7년간을 하나님과 논쟁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일본 행 편도 배표를 하나 사서 죽을 각오로 일본을 향해 떠났었다. 우리는 헌신은 “봉사 혹은 희생”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안 여사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 셈이다. 그분의 일본행은 죽음으로의 여행이었다. 그분은 돌아올 생각을 안 했기에 편도로 배표를 산 것이다. 그분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고, 가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필요하다면 죽음도 각오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더는 우리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희생 제물에 대한 식욕으로 가득 찬 죽음으로 이끌린 것이다. 아!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며, 풍성한 인생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인 것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살리라”.

헌신에 관해 너무나 중요한 한가지 사실을 더 언급하고자 한다. 프란세스 리들리 하버갈(Frances Ridley Havergal)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한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순간의 행위일지 모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평생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헌신이 실체가 되려면 완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결정이지만 지속적인 진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헌

신이 단번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속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주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니(회심), 끈으로 희생 헌물을 제단 뿔에다 맏지라(헌신).’ 이 헌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헌신된 생각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불과 희생 제물을 잡을 칼을 보고 무서워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만 할 것이다. ‘오, 복되신 구주시여 저를 제물로서 묶으소서. 인생 여정을 수치스럽게 마치지 않도록 당신의 강력한 사랑의 줄에 저를 묶으소서. 저로 육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회도 제공치 말도록 하시며 제가 계속 타오르는 온전한 번제물로 남게 하소서.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소서. 저를 당신 자신의 끈으로 갈보리에다 묶으소서, 저를 꼭 묶어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배 안에서 신선한 기름부음을 받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지를 보시기 위해 내 마음과 내 소유를 살피셨습니다. 그 분이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분은 내 아내와 자식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나는 주 저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사형 집행서를 내 앞에 내밀고서 내 서명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 마음에는 심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행복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나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
 행복했고 나는 이때 내 결정은 곧 내 아내와 아이의 지상 생
 명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작은 집으로 혼자서 돌아가고 있던 동안 몇 주
 후 나에게는 ‘아이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는 내가 집을 떠나올 때 괜찮았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잘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마중을 하고서는
 ‘고든이 아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소, 드디
 어 그 일이 닥쳤구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네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고통스러운 갈등이 드디어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에게로 가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작고 하얀 얼굴은 심하게 병든 모
 습으로 베개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된 순종
 은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로 정
 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지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아브
 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이 그리고 나의 아이인 내 자식을 되돌
 려 주신 것입니다.』

“땃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맏지어다”.

chapter 07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박힌 자

어느 가정에 항상

불화가 있었다. 한 젊은이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날 그들 부부가 보트를 타다가 남편의 실수로 배가 뒤집혔고 부인이 익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사법 당국에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사형 집행이 있기 바로 전날 그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그와 함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날 사법당국은 그 아들을 사형에 처했다. 잠시 후 마음이 심히 상한 그의 아버지는 이미 생명이 떠나 버린 불쌍한 아들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절규했다.

『오!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넣어 주어 네가 내가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계신 것이다. 이는 나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이다. 바로 이를 위해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은 나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서 인간이 되셔서 나를 그분과 함께 사형틀로 데리고 가신 것이다. 그렇다. 그분께서는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를 두고 바울은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은 몸에서 죄의 요구와 능력이 다 소진해 버렸음을 보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다” 이제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또한 나는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죽음의 표식을 부활 안으로 지니고 가셨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분은 부활하실 수가 없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전능한 죽음의 능력과 효력을 제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으로서 살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분께 접붙여져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첫 번째 아담은 나와 그의 생명의 연합에 의해(유전), 그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치명적인 결과들은 나에게 전달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나와 그분의 생명의 연합에 의해, 그분께서 죽기까지 보이신 그 순종의 위대한 결과들은 나에게 자동으로 전달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 죽으셨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죄가 지니고 있던 그 권능의 마지막 흔적마저 깨끗

이 지워 버리셨다. 십자가의 조명 하에서는 죄는 “더는” 군림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음을 생생히 인식하면서 죄의 유혹에 대해 “아니요”라고 해야만 한다. 이 “아니요”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내적인 임재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담겨 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상한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자신의 생명, 즉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한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신다. 이 생명은 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생명이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어떤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이 사형수는 자기가 살해한 자의 시체와 얼굴을 마주본 채로 묶여서 죽어 간다. 그가 그 시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는 것뿐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줄로 그에게 묶으셔서 십자가로 데려가셨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못박힌 것이다.” 펜루이스(Penn-Lewis)여사는 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는 너무도 충격적인 꿈을 꾸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꿈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피를 흘리시는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도 추한 어떤 것이었는데 너무도 역겹고 추잡해서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를 이처럼 혐오스럽게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얼마 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던 그 추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그가 꿈에서 본 그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

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진리를 단지 입술로 고백하거나 확고히 인정한다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행에 옮겨 보겠다는 결심으로 흉내 내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삶은 그 어떤 모방으로도 살 수가 없다. 오직 성령께서 내가 자아에 대해 죽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살아있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새롭고도 확고한 교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생명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부인하는 만큼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분의 죽음의 능력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항복할 때 나는 “그분의 부활의 모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있다고 상상하거나 십자가에 있기 위해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는 쉽다. 우리는 자아를 동원하여 우리의 육신에 십자가가 못박힌 것처럼 상상하고서는 그분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육신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그리스도께서 없는 십자가는 프로테스탄트에게나 카톨릭에게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시한 채 그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그분의 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행하고 말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역시 그분과의 진정한 연합을 가져올 수 없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 내게 피난처 될 수 없었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내게 구세주 될 수 없었네
오직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당신 안에 안식하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신 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못박히는 일에 기꺼이 동의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분 안에서의 안식 대신 자신과의 싸움, 실망, 패배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 자아를 내버리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죄의 사망에 이르도록 아플 때까지, 자신을 죄에게 죽은 자로 여기려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보려고 온갖 방법을 써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된다. 자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드디어 자아라는 “시체”에 사로잡히게 된 우리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고 외치게 된다.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주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내 아들이, 나의 부활의 생명의 영을 너에게 넣어 주노니 이는, 네가 ‘진정한 자유를’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 안과 부활 안에서 연합하는 것으로,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사는 기초가 된다. 이 삶이야말로 십자가에 못박힌 삶이요, 그분의 능력 있는 죽음이 실제화되는 삶이다.

한 그리스도인 부호에게 매우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은 아주 품위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이 부자는 자기 아들의 미래와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어느날 밤 어렸을 때부터 죄악에 빠진 삶을 살던 한 소년이 집에 침입해 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며칠 동안 그 아들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의식을 회복했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소년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옛된 모습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이 아들은 이 소년을 죄악된 삶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죄 많은 소년을 집으로 데려오자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소년을 양자로 맞아들여 아들의 형제로 삼기로 했다. 그는 때가 되면 상속을 받게 될 신분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들의 진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악한 습관들은 너무도 뿌리가 깊어서 그는 계속해서 악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결국 아버지는 더는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친아들은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를 썼고 그 소년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베풀었다. 어느날 아버지는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그 소년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기서 자기 아들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그림을 집어 들고 살펴보았다. 그 그림에는 누가 만진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오, 형님, 저는 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결코 착한 아이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한 때 죄인이었던 자가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노력은 결국 보상

받게 되었던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열망한 적이 있는가? “오, 주님, 저는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쳤음을 믿기 바란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단호한 믿음의 행위로 다가서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분과 생명의 연합 관계에 놓으셨으며 그 연합이 실제로 체험되도록 하실 것을 신뢰하라. 당신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 안에 던지시고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빛, 당신의 승리, 당신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라. 당신의 머리이신 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지금도 살아서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기 바란다. 머리와 지체는 한 몸이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분의 뼈 중의 뼈”이다. 이 놀라운 연합을 온전히 붙들기 바란다.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수학의 법칙이 무너지고 만다. 일반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이다.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 신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5:31-32).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전12:12). “온전한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 둘 다를 포함한다”(어거스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둘로 여기는 순간 나는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실제로 관심과, 섬김과, 관점에 있어 즉 모든 면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과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으나 하나의 심장처럼” 박동하는 것이다.

A. T. 피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드신 경건한, 어머니가 얼마 전 작고한 한 경건한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 40년간 저의 어머니님의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으셨어요.’ 그 순간 나는 골드 스미스의 아름다운 시귀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무서운 모습으로 치솟은 높다란 절벽처럼
계곡에서 떠오르다 도중에 폭풍우를 내려놓고
구름은 그 가슴을 돌아 퍼져가지만
영원한 햇빛은 그 머리 위에 내려 쏘이네.』

지상에 있는 우리의 거주지는 찰레와 가시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의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햇빛이 우리의 머리 위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자란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분과 나는 하나이며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저쪽 영광 가운데 계심)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요일4:17)

우리 학교 졸업생이 보낸 편지에는 이 놀라운 진리가 잘 예시되어있다. 여기에 그 일부를 인용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그 은혜에 의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신앙 수준에 도달하고자 오랫동안 애써 왔습니다. 저는 승리하는 삶을 간절히 원했지만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저는 기도와 순종과 결단과 서원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을 달성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행위로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애를 썼던 것이지요. 왜 이처럼 어리석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 오직 믿음을 통해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금년 1월에 와서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되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6:14). 나는 십자가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박을 결코 털어버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던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능력을 물리치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없었을 때 죽음이 나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chapter 08 십자가와 자아

교계에는 수많은 교사, 사역자, 성도, 전도자, 선교사 등이 일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들은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좀더 가까워서 살 펴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아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지도” 모르며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삶에는 자아라고 하는 어둡고 불길한 세력이 웅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쩌서 자신들이 상처받은 자존심, 까다로운 성미, 탐욕, 사랑스럽지 못함과 같은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어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의 강”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의아스

렵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사당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섬기는 사당은 다름아닌 자아라고 하는 사당이다. 그들은 이 사당에서 매일 절을 하며 예를 올린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할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다. 그들은 동정을 받고 싶고, 응석을 부리고 싶으며, 제멋대로 하고 싶은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외적인 십자가,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 지불, 대속자의 죽음,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가 지닌 꿈에도 생각지 못할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에 적용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모른다. 우리는 외적 십자가는 물론 ‘내적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내적인 십자가로 역사하셔서 당신을 자아 도취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까지는, 그 어떤 ‘영적인 것’들도 당신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거슬러 나를 단련하시니

내 자아는 병든 목소리를 지닌 비겁자로서

평안, 안식, 기쁨만을 열망한다네.

자아, 내 자신을 가장 잘 배반하는 자.

나의 가장 힘있는 친구요, 치명적인 대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방해하는 자.

그러나 나의 자아를 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을 벗기실 수 있으며,

멍에를 부수시고 나를 해방시키신다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원래의 집과 거처를 갖고 있었으나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아라고 하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 되셨고, 그의 호흡을 제공하셨으며,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던 그 놀라운 곳에서 빠져나온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 자가 되고 만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내버렸고 자아가 인간의 왕좌를 차지하고 말았다. 결코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 권위와 찬탈자, 바로 그가 자아인 것이다. 이제 자아는 인간에게 새롭지만 거짓된 중심이 되고 만 것이다. 자아는 해 아래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사랑한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행위마저도, 숨겨진 자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더러운 걸레 같은 것으로 다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나타날 뿐이다. 그는 그의 오른손으로 뭔가를 행할 때 그의 자아 만 죽이라고 하는 왼손을 의식한다. 윌리엄 로우(William Law)는 이렇게 말했다. “자아는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뿌리요, 가지요, 나무이다.”

이와 같은 막강한 자아가 전능하신 하나님(EI Shaddai)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충격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이 비극 중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거짓된 자아의 충만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강요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름아닌 자발적인 경배에 의해서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원칙과 목적을 무너뜨리고 행동하시겠는가? 실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펼쳐 보이셨다. 십자가는 실로 “하나님의 능력

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갈보리는 최초의 인류의 뿌리를 내리친 도끼였다. 여기서 옛사람 아담은 끝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아담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머리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자발적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분께서는 자아가 완전히 배제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묶으셨고 우리를 죽음의 깊은 곳으로 그분과 함께 데리고 가셨다. 이 모든 것은 죄의 형벌을 척결하고 우리로 자아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심은, 다시 말해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악된 자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오, 성도 여러분이여, 사람의 아들께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셔서 뱀뱀처럼 높이 들리셨도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던 그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실로 칼이 네 자신의 혼도 찢어 꿰뚫으리라. 이는 많은 자의 마음의 생각(그렇다. 바로 당신과 나의 생각을)을 드러내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어째서 꼭 뱀이어야 하는가? 왜 백합이나 장미는 될 수 없는가?”라고 물을지 모른다. 왕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왜 더 사랑스러운 무엇이 될 수는 없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묘사하시고자 했던 것이 죄악된 자아 생명(self-life)의 저주받은 모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분께서는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하신 것이다. 오직 뱀만이 이 진리를 상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나에게 무서운 빛을 비추었다. 나는 이 빛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 빛은 나의 죄악들만 비춘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가 행한 행동(what I did)은 내 자신(what I am)으로 부터 나온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

원이 나 즉 바로 자아라고 하는 사실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십자가를
응시해 보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나는 빌라도의 뜰에 모인 군중을 보네.
나는 그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확인하네;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그들의 외침 소리
신성모독과 함께 소름을 끼치게 하네.

그 외쳐대는 군중 속에서
나도 그 중 하나임을 느낀다네
그 거칠고 떠들썩한 음성 중에서
나는 내 음성을 확인한다네.

그 신성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바로 나였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박았다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다네,
내가 바로 그분을 조롱한 자였네.

나는 십자가 주변에서 군중들을 보고 있네
고통 당하는 분의 신음소리를 조롱하는 소리
그 역시 나의 음성처럼 들려오니
마치 나 혼자서 조롱하고 있는 것 같다네.

- 호레이셔스 보내리(Horatius Bonari)

당신은 이와 같은 고백이 두려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 이와 같은 자아를 떨쳐 버리고 싶은가?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은 자아의 모습을 인정하기까지는 자아를 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높이 들린 십자가의 왕좌로부터 나는 자아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아를 내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치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나는 가지만 처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몸통이 베어져 넘어진 것이다. 즉 나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과거와 단절되었고 자아 자체와도 단절되었다. 나는 완전히 저주 받기로 정해진 자다. 그리하여 어떤 다른 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처형을 당하셨을 때 나도 처형을 당한 것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완전히 끝났으며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했다.

나는 이와 같은 법적인 사형 집행을 진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나는 내가 처형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집행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내가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일은 너무도 무서운 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혀” 죽음에 이미 넘겨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 사형 집행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에 동의해야 하며 나는 그분의 죽음의 능력으로 자아에서 내려와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실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음에 연합할 때에만 그 능력을 발휘한다. 나는 이 신성한 죽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자아부인은 한두 가지 악한 행동을 근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나무의 그 뿌리에 십자가의 도끼를 갖다 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아의 가지만을 치신 것이 아니고 나무 밑동을 완전히 잘라 버리신다. 나의 모든 자기 존중, 자기 옹호, 자기 영

광, 치명적인 자기 연민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자아의 표출들은, 자아라고 하는 나무의 깊이 박힌 뿌리에서 뻗어 나온 육신적 가지들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가지들만 친다는 것은 자아라는 생명이 더욱 추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만들 뿐이다. 하나의 가지가 잘려 나갔지만 더 추한 바리새적 가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겉으로는 멋있게 보일 수 있고 사람들간에 높이 평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보자면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자아라는 나무에서 맺힌 쓰디쓴 열매들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나 나에게는 풍성한 소망이 있다. 이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 안으로 접붙여졌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신성한 성품에 동참자가 된 것이다. 나에게 부여된 새 생명은 십자가에 못박힌 생명이며 자아에게 죽은 생명이다. 자아는 자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께 복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전능하신 죽음이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연출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나는 자아에 대해 더욱더 완전히 죽게 된다.

누군가가 죠지 물러에게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거의 바닥에 닿기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내가 죠지 물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러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기뻐한다네.
당신의 신성한 완전함 안에서,
또한 절대적인 순복에서 나오는
깊고 신비로운 기쁨을 맛본다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즐거워하네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발견하므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영원토록 그리하리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루시 베넷(Lucy A. Bennett)

chapter 09 십자가 - 본성과는 반대됨

스펠전은 총을 수리하기

위해 대장장이에게 간 한 시골 농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대장 장이는 농부가 가져온 총을 검사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총은 매우 낡았고 다 망가졌으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상태입니다. 이 총을 어떻게 수리해 드릴까요?” 이에 대해 농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의 모든 부분이 다 낡았다면 전부 새로 만들어야겠군요” 그러자 대장 장이는 “뭐 하러 전부 뜯어고칩니까, 아예 새 총을 하나 사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요,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던 바입니다. 내가 총의 모든 부분을 수리하라고 한 것은 새 총을 갖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나는 새로운 총을 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의도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새로

은 본성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농부가 매우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에 비하면 매우 분별력이 뛰어난 셈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수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옛 인류 전
체를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아담에 속한
인류에 대한 완벽한 처방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리하여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뜻과는 어
긋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이 아니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
서”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지혜와는 반대된다. 왜냐
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도 반대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
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24).**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자긍심과도 모순된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안에 있던 그 생각을 품어야
만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에 반대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
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
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
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
라”(고후5:14-15).**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본성과 모순된다. 따
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확고하고도 변함없는 원칙은 이
러하다.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
마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따
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도끼는 이미 뿌리에 닿았던

것이다.” 옛 아담이라는 나무줄기는 완전히 잘려 나가고 만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옛 사람이 완전히 파산하였음을 보여주며 아담에 속한 옛 사람은 사망하였음을 선언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즉 육으로 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초자연적인 새 생명이 대신 자리잡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강화”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어 버리시려고 오신 것이며 우리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십자가는 모든 육신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은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즙을 옛 부대에 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새 천을 낚은 옷에 깎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옛 사람의 누더기를 완전히 벗겨 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계명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도덕적·영적인 유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본질이다. “우리의 자아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지닌 모든 악의 요소들의 뿌리이며 나무요 가지들인 것이다.”

자아 부인이란 그저 이런 저런 방종을 절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A. T. 피어슨 박사가 말한 대로 모든 방종 -크고 작은 여러 종류- 이라는 가지들의 뿌리인 자아에 도끼를 대는 것이다. 자기 의, 자기 신뢰, 자아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의지, 자기 방어, 자기 영광 등이 뿌리에서 자라 나온 수천 개의 가지들 중 그저 몇 개의 가지만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가지들이 더욱 왕성하게 뻗어 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도끼가 자아의 뿌리에 놓일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성령의 생명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미덕은 그저 썩은 뿌리에 접붙여진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짜 가지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뿌리박은 이후에도 옛
자아의 뿌리와 샘플로부터 가끔씩은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일
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
인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보자.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옛 아담의 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로
서 “들포도”를 맺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로서
그분께로 접붙여졌다. 내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는 아담의 줄기로부터 차단되었다. 그
리고 동시에 살아 계신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안으로 접붙여졌다. 페이스
(E. J. Pace)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얼마 전 내 고향인 플로리
다에서 감귤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농장 주인에게 과
일을 어떻게 접붙이는지를 보여달라고 청했다. 그는 나를 묘목원으로
인도했다. 그는 끝에 갓 나온 싹이 난 작은 가지를 묘목에서 조심스럽
게 잘라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다른 나무 쪽으로 가서는 그 위에 칼로
십자가 모양을 파고서 그 안에다 그 어린 가지를 능숙하게 집어넣었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옛 줄기에서 베어져서 십자가에서 영
원한 신성 안으로 접붙여진 것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라는 사실을 붙들면 된다. 우리는 하나
님의 성품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접붙임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붙이는 방식은 이러하다.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를 이보다
못한 줄기예다가 접붙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는 반
대로 좋은 나무에다 접붙임 된 것이다. 참 포도나무는 십자가에 못박

혔고 이 구속주의 찢겨진 옆구리에 우리는 접붙여진 것이다. 즉 나쁜 열매 맺는 자가 좋은 열매 맺는 분께 접붙임 된 것이다. 이외에도 “본성에 거스르는” 또 한가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자연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가지는 여전히 “종류대로” 즉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나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따라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천연적인 생명은 죽어야 하고 “숨”을 거두어야만 한다.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된 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제는 본성에 따라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보여주며 나는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의 생명이 접붙여진 가지인 나를 통해 표출되어야 하며, 나의 본성과는 너무도 어긋나는 의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도록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이미 카미카엘 씨는 코힐라(Kohila)라는 간호사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뭔가와 맞닥뜨렸다. 그것은 우리가 난탄(Nan than)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난(Nan)은 나(I)를 뜻하고 탄(than)은 이 대명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혹자는 ‘자아를 포기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은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난탄(Nan than)은 무척이나 자신에 대해 염려를 한다. 코힐라는 그녀의 난탄을 포기하였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분께서는 그 생명을 전적으로 장악하셔야 한다. 그분께서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몰아내실 때까지 끝까지 “연좌 농성”을 벌이실 것이다. 십자가는 “내가 아니고…”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를 궁지로 몰고 갈 것이다. 자연에 따른 접붙이기와 열매 맺기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너희가 내 안에”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야 “내가 너희 안에”가 이루어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자연의 의지를
가로질러 뻗어 있고
예수님의 발은 육신이
지배하지 않는 곳을 밟는다네
노예의 족쇄를 뒤로 하니
복된 일이다.
우리의 자아를 뒤로 하니
수의와 무덤만이 남아 있네!

- 터스티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하여 접붙여진 어린 가지의 고백을 들어보자.

『저는 저의 혈통에서 잘려졌습니다. 저는 이전의 모든 관계에 대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저는 옛 가문으로부터 철저히 축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옛 것들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고 있으며 - 저는 여전히 작은 야생 가지일 뿐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일 뿐입니다.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서 다른 분의 생명이 살고 있기에 제가 맺은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분의 생명이 맺은 열매이며 이 생명은 계속해서 저의 옛 생명을 거슬러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고귀한 열매를 저를 통해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와 같은 원칙들을 끊임없이 거스르게 된다. 이에 대해 헤겔(F.J. Huegel)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너무도 자아에 매여 있고 뒤덮여 있고 얽혀 있고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두는 일은 우리의 옛 성품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깊은 사랑의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이다. 십자가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거칠게 대한다. 즉 옛 생명을 죽여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긴다거나 옛 성품을 뿌리뽑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자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프랜시스 데 살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기성복처럼 이미 만들어진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또한 아무런 어려움도 가져다 주지 않는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도 환상이다. 이와 같은 피상적인 거룩은 인간의 본성과 매우 잘 어울릴 것이다. 우리는 성결에 이르는 비결만 발견한다면 쉽고 빠르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동안 십자가가 놓여야 할 옛 모습이 우리의 본성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 내야만 한다. 만약 독자 여러분께서 자아와 죄에 대해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아의 부산물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취향, 선택, 선호하는 것 등에 분명한 갈보리 십자가의 표시가 찍혀야만 할 것이다. 천연적으로 타고난 모든 요소에 십자가의 죽음의 표시가 찍혀있어야만 한다. 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선택위에 그분의 십자가를 표시하시도록 기도하자.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여, 오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를 표시하소서
자아가 엿보이는 그 모든 요소 위에
당신의 상실의 표식을 찍으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고귀한 것 위에
죽음의 표시가 이곳 저곳에 놓이게 될 때,
우리 모두 기이히 여기지 않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인정하리이다.

- 에이미 카마이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일생 내내 장례식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분, 만물의 창조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께서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분의 성전을 삼으시고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는가? 그분께서는 “내가 사니 너도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신비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이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다. 실로 생명과 사랑과 자유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으며 그분과 함께 앓힌 바 되었다. 나는 영원하신 분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것”이다. 그레고리 맨틀(J Gregory Mantle)은 이렇게 말했다.

『퍼트셔 골짜기에는 작은 개울의 바위 위에서 자라던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곳에는 뿌리를 뺄 흙도 없었고 영양분을 흡수할 흙도 없었다. 이 나무는 오랫동안 성장을 방해 받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식물이 갖고 있는 놀라운 본성에 의해 근처에 있던 좁은 다리를 통해 수염 뿌리를 건너 쪽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실개천 건너 쪽 독에 있는 옥토 위에 뿌리를 박았다. 나무는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 급속히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 작은 다리가 나무에게 생명을 제공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생

명의 원천인 것이다.』

만약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놓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가? 그리하여 쓰라린 체험을 맛본 적은 없는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 봤고, 노력해 보았고 기도해 보았고, 애통해 보았다. 그러나 이 모두가 허사였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흐름은 불순물과 뒤섞여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을 통해 혼탁해지고 만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충만함이 있음을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나는 뿌리 안에 풍성한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나의 보잘 것없는 가지를 뿌리에 박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절망이 극에 달할 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밖에 없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감사 드리는 점은 완전히 신성하고 능력 있는 생명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참된 살아있는 힘을 찾으려면 나와 나의 생명에서는 하지 말라
이는 자아는 자신만을 사랑하며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함이라
씨가 뿌려진 땅에서 열매를 구하듯이
살아있는 생명을 찾되 죽음 당한 생명으로부터 구하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서둘러 그 생명에 치명
타를 가하라

그리하면 상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무한
한 보물을 발견케 되리니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새로운 부활의 싹이 발견되겠는가?

- 업햄(T.C. Upham)

chapter 10 십자가와 두 본성1

팬톤(D. M. Panton)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나운 사람일지라도 수용소에서 혼자서 지낸다면 그는 부드럽고, 온순하고, 조용하며 합리적이고 신사처럼 행동한다.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 방식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평안하게 지낸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 훌륭한 신사를 한 사람 들여보내 보라. 그러면 이 사나운 사람의 얼굴빛은 변할 것이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침입자에게 대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나와 친한 한 동역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전

에는 성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여자 동역자는 늘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아무런 성질을 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절제 있는 삶을 살아 갔었다. 그녀는 결코 내적 갈등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그녀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기심이 독버섯처럼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렇다. 육신은 결코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신은 회심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갱생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옛 사람(육신)과 새 사람(거듭난 영)이 존재하게 된다. “첫째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natural man)”, 그리고 “정욕에 따라 썩은 옛 사람”이라는 성경적 표현들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즉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때 물려받은 자아를 말한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옷 입은 것이다.

믿는 성도로서 나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육신적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다”(롬8:7). 육신적 생각은 성령의 일들을 철저히 배척한다. 육신은 단순한 대적이 아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화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신은 “하나님께 대적”이므로 화해가 있을 수 없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육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있어 실로 엄청난 충격은 “내가 육신적이서 죄 아래 팔린 것과 동시에 속사람을 따

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인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이 전쟁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요 지독한 내란인 셈이다. 이 전쟁은 외부의 적과 벌이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내부에 숨어있는 “간첩”과의 싸움인 것이다. 따라서 이 치열한 전쟁이 그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또한 패배주의적인 입장을 택한 채 자신들의 매일의 실패를 “옛 사람”에게만 탓을 돌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일부 성경 교사들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두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 새사람은 선한 천사처럼 완벽하고 온전한 반면 옛사람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악한 자이다.』(H. Bonar).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의지에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두 개의 독립된 서로 다른 인격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측면인 것이다. 모울 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몸은 결코 독립된 존재 즉 별도의 인격이 아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음모를 꾸민다면’ 그것은 독립된 외부인의 죄가 아닌 나의 죄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독일인-미국인’이 요청한 알현을 윌리암 황제가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 알현이 거부된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에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황제는 이렇게 답변했다. “짐은 미국인도 알고 독일인도 알지만 ‘독일인-미국인’은 알지 못하노라” 나는 한 개체로서 한때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아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나는 “육신 안에” 있었으며 저주 받고 멸망 받은 상태에 있었다. 그때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절단되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께로 연합하였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다. 왜 못박힐 수밖에 없었는가? 치유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아담-그리스도’ 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 내가 이와 같은 신분이라면 나의 왕께서는 결코 알현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죄인들은 율법을 피하기 위해 “주의 장막으로 피신하여 제단의 뿔을 붙들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출21:14). 마찬가지로 모든 육신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못박혀 있다. I am crucified라고

되어 있는 권위역본의 번역이 얼마나 정확한가?—역자주)

우리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왕께서 알현하실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육신에게는 더 자비가 있을 수 없다.

육신은 성소에 다가설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다가설 때 육신이 십자가에 못박혀 있는 상태로 다가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왕을 알현할 수가 없다. 십자가는 우리와 옛 사람 사이의 영원한 분리를 선포한 것이다. 오직 이와 같은 자세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유대인이나 힌두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들의 친척은 이들을 파문하기위해 그들의 장례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그들을 완전히 축출해 버렸다는 것을 공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장례식 이후 그들은 더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우리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이 장례식이 끝나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를 가로막고 서서 “당신은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에게 키스하려고 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나를 자신에게 붙들어 매시고 나를 저주받은 나무로 데려가시고 무덤에다 내려놓으셨다. 이로써 그분께서는 나와 나의 “옛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신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죽은 개”에게 키스하기 위해 되돌아간다면 내 혼의 신랑에게 얼마나 큰 모욕과 실망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나의 사

형 선고문에 엄숙하게 서명을 하고 영원한 장례식을 지낼 때이다!

얼마 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설교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한 몇쟁이 친구가 이렇게 평을 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그렇게도 못됐단 말이야?” 이에 대해 한 성도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질투나 공허감이나 교만 같은 것으로 괴로워한 적이 없단 말ियो?”(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그런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 그는 “오! 그거야 주님의 보혈이 담당하는 거지요.” 라고 너무도 쉽게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련하고 자기 만족에 물든 청년에게는 죄가 아직은 “심히 죄 된 상태가 아닌 것이다.” 그에게 주 예수님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편리한 도피처이며 그분의 보혈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든 책임을 면케 해 주는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자,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다루는 칭의와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성화와의 밀접한 관계를 면밀히 주목하기 바란다.

로마서 5장이 신앙 생활의 기초라고 한다면 로마서 6장은 그 후에 이어진 신앙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롬5:20).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우리와 아담 그리고 우리와 죄와의 모든 관계는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보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룬 나로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완전히 연합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나의 법적인 위치이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는 하나 됨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얻게 된 나의 지위인 것이다.

의롭게 된 성도가 회심 직후부터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롬6:11)로 여길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즉 자기 육신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때까지는 광야 길에서 헤매게 된다(로마서7장). 그러나 우리가 진정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는 고백을 하게 될 때면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복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로마서 8장에도 아직 싸움은 남아 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처럼 가련하고 비참한 싸움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이곳에는 “나”와 “자아”로 가득 차 있다. 반면 로마서 8장의 영적 싸움은 바울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 반면 다른 쪽에는 “성령을 따르는 길”이 놓여 있다. 가장 승리를 잘 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항상 이 두 가지 길 앞에 놓여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령의 법에 따라 해방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택을 하는 주체는 우리 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빛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좇아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졌던 옛 채무는 이미 청산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경고와 더불어 격려를 덧붙이고 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죽을 것이나”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즉 “죽게 된 것이다,”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혹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 등이 그것이다.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야고보가 말했던 “죄가 완료된즉 사망을 낳느니라”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메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즉 육체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혼을 파멸로 몰고 가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셋과 브라운은 그 유명한 주석에서

『만약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육신과 전쟁은 교착 상태에서 지속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상대방의 생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결투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상징한다) 그들은 열매로 가득한 땅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치열한 전투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들 앞에 놓인 딜레마는 “만약 너희가 가나안 인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를 죽이고 말 것이다”였던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은 육신과 성령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이란 단어는 죽음에 처한다는 것이요, 몸의 행실이란 저주 받은 가나안적인 육체를 뜻한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많은 논란이 있어 온 요일 3:6-9에 대해 특별히(비록 짧지만) 상고해 보고자 한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들이 제안된 바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없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문의 교리적 해석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요한 서신의 기록 목적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적인 교제”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교제의 조건은 매우 실질적이면 서도 매우 엄격하다. 즉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행실이 그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성결”을 내세우는 자들은 본 구절의 앞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뒷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부터 청소하도록 하자.

우리는 A. J. 고든(Gorden)박사의 지혜로운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성경에 계시된 신성한 진리는 종종 두 극단 사이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오류는 성경의 한 극단적인 구절을 가지고 또 다른 극단적인 구절을 거부하는 것이다...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면 죄 가운데서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려는 자들은 더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요일3:7)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자랑하는 한편,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죄 안에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요한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요한은 다음 구절로 결론을 내린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이와 같은 말을 한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로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도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고자 할 목적으로 요한 서신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이보다 훨씬 더 깊다. 혹자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새사람으로서는 죄를 짓지 못하며 오직 옛사람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극단적 생각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의 죄가 완전히 뿌리 뽑혀서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구절이 그런 억지 주장과 결코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Is born)라는 표현의 시제가 현재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과거 중생 체험이 아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was born of)라고 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즉 과거에 거듭난 사람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

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 이 조건 하에서만 이미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교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요한은 우리가 영적 선택을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그 상황에 관한 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표현은 요셉이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을 한 순간(창39장)의 상황을 잘 예시해 준다고 하겠다. 요셉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씨가 그의 속에 머물러 있음이요- 그는 죄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했던 것이다(유1:23). 그 순간 요셉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다”. 요셉은 그의 행동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태어났다.” (그 순간 말씀의 씨앗으로, 그분의 씨앗으로) 따라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새로운 의무는 새로운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가 태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때 이를 위한 새로운 빛이 새로운 복종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가나안 땅에 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 땅은 열매가 풍성한 땅인 동시에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던 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의 땅은 이미 그들의 유업이 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

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여호수아가 그의 대적들의 목을 발로 밟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지체들을 즉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모두 점령하라고 하셨는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일년 내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출23:29-30). 우리는 평생 동안 새로운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해 가야만 한다. 우선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너머에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일곱 민족과 대면하여야 했다.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옛 생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만약 당신이 성령에 의해 당신의 몸의 악습, 술책, 그리고 음모를 죽음에 처하게 한다면,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Moule).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물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좀더 계속해보자. 이스라엘이 마주친 첫 번째 요새(점령이 불가능하게 보였음은 물론이다)는 여리고였다. 그러나 “여리고 성벽은 믿음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또한 여호수아는 그 도시(성읍)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하루 걸러 여러 번 점령하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일단 성읍을 점령한 후엔 이미 획득한 승리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며 굳건히 “서 있었다.” 이 여리고에 관한 한 그들은 승리를 유지했고 “죄를 범치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정적인 요새를 점령해야 하며(예를 들면 게으름, 탐심, 이기심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 등), 그 다음에는 그 옛 생활의 한 부분에 십자가를 심어 놓고서 “굳게 서” 있으면 된다. 그 요새는 이미 점령되었으므로 그곳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저주받은 가나안 인들과 타협을 한다든가 거짓 평화 동맹을 맺는다면 사탄은 그의 “철병거”를 내세우며 서 있는 “산당”을 재탈환하기 위해 다시 싸움을 걸지도 모른다.

여부스 족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했다. 이 요새는 지난 400여 년간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던 유명한 요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요새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은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입성하지 못하도록 반항하고 있는 요새는 없는가? 더 위대하신 다윗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자신이 그 요새를 공격하고, 대적을 쫓아 내어 보라. 그리하면 당신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마다(is born of God) 세상을 이기느니라.” 당신이 이겨야 할 다음 요새는 어디인가? 당신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다면”(is born) 승리는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십자가를 대한다.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는 생명의 새

로움 안으로 “나는 것”이며 매번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다. 그리고 나서는 그 승리 위에 굳건히 “서게”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교제를 위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인 것이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사랑하는 형제여! 광야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진대 두 마음을 품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땅도 점령하지 못하면서, 젖과 꿀과 포도열매를 맛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구속주를 위해 아무런 포로도 잡지 못하면서 고국에서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두 본성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당신은 아담-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인들로부터 공물을 받으라든가 그들을 묶어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물이 아닌 죽음에 처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열매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서는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은 물론 당신 자신의 경험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두 가지 본성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도, 나는 이미 옛사람을 뿌리째 다 뽑아 버린 상태이니 더는 싸움이 없다는 주장도 모두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그리하여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심을 적용하라. 십자가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을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여, 그대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십자가는 우리가 성도처럼 살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당장 올라가 유업을 차지하자.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내자.

이미 타락해 버린 자들을 위해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자 한다. (한 번이라도 미끄러져 본 적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이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죄를 당장에 자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화해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우리 쪽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무지하여 지은 죄나 실패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항상 요한과 동일해야 한다. 즉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점령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 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얗게 익어 추수하게 된 밭을 살펴보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전세계에 아직도 점령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프로그램과 목적에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 속히 “내란”을 마무리 짓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어린양을 위해 그분의 고통의 보상을 얻기 위해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자. “다른 양”의 위대한 목자장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점령하고 점령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들도 내가 데려와야 하리라”고 하신 그 양들로 인해 심히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께 대해 여러 면에서 불

복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교”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불순종이 아닐 수 없다. 탐심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인들”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써 짓는 죄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가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이미 교회의 생명력을 무력화한 지 오래이다. 현재 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아 “육신을 따라” 살고 있으며 “발육 감퇴”를 거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아니, 이미 죽은 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은 글로버(Glover)의 Progress of World-wide Missions에서 유명한 선교지도자인 찰스 왓슨(Charles R. Watson)목사(카이로에 있는 미국 대학교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을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이 선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도전임에 분명하다. 교회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 여부가 결정된다. 기독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수백만 인류의 행복과 복지 문제, 민족들의 생활 조건의 향상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않느냐의 문제들. 점령되지 못한 곳들은 반드시 점령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점령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점령 부분들이 먼저 점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며 이것도 그분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점령되지 못한 부분이 먼저 해결될 때에만 그분께서

는 더 멀리 있는 요새들을 점령할 길을 여실 것이다.』



chapter 12 십자가와 육신

만약 육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육신은 십자가를 보고서 아마 아미엘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할 것이다. (이 고백은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에 의해 인용된 바 있다) 아미엘은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언도 받고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들을 놀란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란 말인가? 끊임없는 굴욕감과 아울러 나의 “노예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나의 행동범위는 점점 좁아져 갔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요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숨이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결국 나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바로 십자가이다. 한마디로 육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바울은 오랜 신앙 여정 끝에 “내 안에(즉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깨어 있는 성도는 “아니, 나에게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해당된단 말인가?”라는 갈등을 겪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육신의 생각(혹은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복할 수도 없다.” 결국 판결은 내려졌고 심판은 집행되었다. 육신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저주와 십자가 처형이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히는 것만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육신은 한 때의 더러운 무리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운명에 처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그의 정육과 애정”과 더불어 저주받은 나무에 못박아 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성취하셨다. 즉 그분에 의해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죽음은 결코 생명을 상속 받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은 “지옥의 냄새”를 풍긴다. 육신은 썩은 냄새만을 풍길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가야 할 곳 곧 십자가로 보낸 것이다.

성경은 “육신”을 “성령”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성품과 연관시켜 제시한다. 성경은 육신의 뜻,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혜, 육신의 목적, 육신의 신뢰, 육신의

더러움, 육신의 일, 육신의 싸움, 육신의 영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경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육신을 전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감정, 사고, 능력-인간의 모든 의지, 생각, 에너지-이 모든 것은 육신을 주인으로 섬긴다. 이 육신은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육신 역시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구원의 희망은 전혀 없구나,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이제는 숨을 거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희망도 미래도 사라져 버렸도다. 바로 이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다.” 십자가는 바로 이 인간의 육신적인 자아의 생명을 붙들어가다 심판을 선언하고 이 심판으로 육신은 사망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다.

아미엘은 자기에게 내려진 그 잔혹한 선고를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써 우리들로(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동일한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분의 것이 되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즉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살면),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입증해주는 다음 말씀을 주목하기 바란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롬8:11-12) 이제 육신은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위치는 “성령 안”이 된 것이다.

비록 성도가 바울의 권면대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김”으로써 로마서 7장이라는 터널을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 안에 아직도 구속 받지 못한 부분 즉 육신을 통해 자아가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는 육신 즉 “속세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죽을 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8장에서는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승리하는 성도라면 아직도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아의 모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다 하면서도 내면에는 자기 신뢰와 자기 존중이 숨어 있으며 약간의 고통에도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과 자기 연민이 드러난다. 조금만 오해를 받기만 해도 자기방어와 자기변명에 급급하기 일쑤이다. 일상 생활에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역시 자기 주장과 자기 존중으로 일관하며 지식에 관해서는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을 펼치기 일쑤이다. 약간의 성공이 있을라치면 자기 찬양과 자기 축하에 정신이 없고 영적인 성취가 찾아올 경우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만다. 공개적인 사역을 수행할 때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일쑤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자기 사랑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육신은 “자기”(I)를 내세우는 전문가이다.

지금 열거한 것들은 우리가 찾아내어 십자가로 가져가야 할 “육신”의 수많은 모습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맨틀(Mantle)은 이렇게 말했다.

『부르춤(Wurtzung)궁전에는 유리로 된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천 개의 거울 홀이라고 불린다.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가면 1000개의 손이 당신을 맞이하며, 1000개의 미소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울면 1000개의 눈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자신의 것들이다.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자아로 둘러싸여 자아를 가득 번식시킨 모습 속에서 당신은 속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지닌 수천 개의 모습을 동시에 보지 못하도록 해 주시는 것은 실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결코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통해 구속을 받았고 우리의 중심에서 자유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싸워야 할 싸움이 놓여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자이신 주님 편에서 싸우게 된다. 우리에게는 십자가형에 처해야 할 육신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끝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출신의 한 흑인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나는 성도가 될 운명에 처했다.』

우리는 “급히” 이집트를 떠났다. 이집트로 하여금 “이를 갈면서 (복수심으로)” 우리 곁을 떠나도록 하라. 이집트 쪽으로는 더는 눈길을 돌리지 말라. 그 방향은 해방이 아닌 죽음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들

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토끼와 함께 달리며 사냥개와 더불어 사냥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갈보리의 죽음의 홍수가 가로놓여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 서 있어야 한다. 어찌하여 두 견해 사이에서 머뭇거리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가? 어찌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는가? 어찌하여 육신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는가?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며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은 그분의 것인가? 그렇다면 그분의 것이 되라. 당신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고 품위를 지키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뿔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도를 하면서 양심을 달래는 대신 즉각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끓어 버리라”고 하시면 울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며 오랫동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왔다. 우리는 육신적인 경향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존재이다. 당신은 어찌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라고 단념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고자 하는 “가나안 인”들이 여전히 있는 법이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들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육신의 모습들(평범하면서도 교묘한 것들)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당신은 어찌면 늘 불평을 일삼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마 “슬프고도, 달콤한 자아”에 대해 부루통하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수군거리는 가련한 자아를 처리하시고 당신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심으로써 불평을 제거하실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승리가 쟁취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뿐이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살리라”**(롬8:13).

당신은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당신은 그것을 최악된 교만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다음 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책망하면 그때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라. “당신은 잘 모르시는군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십자가와 조화를 이루고 사는 길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환경만 바뀐다면 당신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환경이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물의 영원한 본질은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가 내적인 평온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억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에이미 카마이클)

당신은 질투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짜릿

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의 침례를 받고 싶은 육신적인 요구를 극복하였는가? 당신은 믿기 전에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는가? 육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오만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기준을 붙들고 있는 것이며 이런 것은 즉시 십자가로 가져가야만 한다. 구약의 제사의식에 따르면 죽음을 의미하는 피가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부음보다 항상 앞서 제시되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다섯 개의 상처를 여전히 갖고 계신다. 이 상처들은 육신이 그 정욕과 욕심과 더불어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드렸다가 죽고 말았다.

당신은 남들의 흉을 보는 그리스도인인가? 호기심이란 가라앉을 줄 모르는 물결과 같다. 당신의 혀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나는 자기 혀를 통제하고자 뜨거운 부지깥이로 혀를 지지려고 했던 한 목사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옳았다. 그는 혀를 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다. 후일 그 목사는 “성령을 통해” 혀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열정적인 원주민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복음 전도자였다. 그의 아내는 매우 자기 확신에 차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번은 그녀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나 이 설교자는 그녀의 편을 들었다. 그는 육신과 타협하고 만 것이다. 물론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타협의 대가로서의 화평은 의미가 없다. 결국 성령께서는 이 설교자를 사용하시기를 중단하셨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

호하게 말씀하신다. “네 형제나 네 어머니의 아들이나 네 아들딸이나 네 품의 아내나 네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친구가 은밀히 너를 피어 이끄기를, 우리가 가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 주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네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신13:6-10) 오늘날의 세대는 영적으로 유약하고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 처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리 더는 “두려움”을 품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강직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면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답한다.

『달콤한 사랑은 영적인 순전함을 가져올 수 없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한 사랑(charity)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미”하지만 그것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랑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 원주민 설교자가 것처럼 쉽게 타협하고 만 것은 그가 이미

육신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이미 지니고 있었던 육신적 모습을 드러내도록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육신은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 준다.” 사탄은 결코 내분되어 있지 않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을 편들게 마련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째서 참다운 징계가 없는가?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부드럽게 처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어떤 집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 내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러나 십자가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의의 편에 서 있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치워 버리신다.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고전5:13).

육신이 표출되는 경우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경우가 가족 관계에 서일 것이다. 서로를 물고 뜯는 식의 육신적인 모습들은 쉽게 드러나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육신의 모습이 매우 교묘하게 나타난다. “달콤한 사랑”으로 가장한 육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십자가의 길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들 자신이 십자가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의 한 친구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 여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그것이 음식이든 옷이든 간에—은 모두 필요한 것이며 꼭 소유해야 한다고 믿도록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녀는 낭비나 사치에 빠진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에 탐닉해 있었다. 그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들에 파묻혀 지냈다. 그녀는 밝은 붉은 색을 특별히 좋아했으며 기름진 음식과 단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녀는 이런 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들은 한 마디로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신

학 이론이 아니라 진리요 삶의 원칙이며 불변의 법칙이다. 이 원칙은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붙들려고 하는 것들은 얼마 있으면 잃기 마련이며 금방 싫어하게 된다. 이런 싫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온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 그녀는 붉은 색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몸 역시 지방질을 거부했으며 단것은 입에만 대어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싫어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고 결국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제 와서는 자신의 생명을 싫어하게까지 된 것이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 “룻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 잃게 될 것이다.” 룻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지 않았던가? 물론 그녀는 소돔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욕심은 여전히 소돔의 달콤한 것들을 붙들었고 그녀는 그녀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그것을 잃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이 잿더미에나 적합한 것으로 여기신 반면 그녀는 소돔을 구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불로부터 “생명”을 구원코자 마음먹었다. 물론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성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생명”은 그녀가 원하는 것, 소돔에 남아 있는 세상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곳의 삶을 사랑했고 갈망했고 쳐다보다가 결국은 그것과 아울러 육신적인 목숨마저 잃고 말았다.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오, 나의 친구여, 주님께서 오시고 계신다. 당신의 생활은 어떠한가? 당신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욕심에 묶여 있는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오, 우리에게는 이것

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만 빚진 자들이다. 당신의 삶에서 십자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분께 단호하게 말기라.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에 못박힌 생명 앞에서는 육신이 꿈쩍을 못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하여금 당신을 붙들어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단호히 분리시키도록 하라. “모든 강력한 확신은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 확신은 우리를 정복하고 흡수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차단시킨다.” 십자가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한 옛 성도가 울부짖은 것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자비를 베푸신 자의 외침을 들으소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모든 즐거움 안에 가시를 놓으시고, 모든 조롱박 위에 벌레를 놓으소서. 나의 즐거움이 당신께 대한 나의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거나 당신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 주소서.』 (T. C. Upham)

우리는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에서 병든 몸으로 주님의 군사로 살았던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의 고백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녀는 실로 고통의 길을 배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였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삶의 즐거운 일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즉 죄악된 세상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뭇거림과 도피 행각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미 왕관을 쓰고자 합니까? 그분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는 보석이 끼워져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고급 양말과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해보았습니까? 피눈물과 애틋한 상황과 조롱을 당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슨한 삶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것만을 좋아하는지요…. 주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삶으로부터도 도망치려는 우리의 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락과 사랑하는 자들, 재산, 소유를 갖고 싶은 마음에 노예가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갈보리로, 그리고 겿세 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 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그곳에 가본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락함, 안정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동정 및 자기 중심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망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이런 것만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는가?

주님, 제가 수고로 지칠 때
당신의 계명을 무겁다고 느낄 때
내 짐으로 인해 불평이 터져나올 때
주님,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소서.

당신의 못박히신 손, 당신의 상처 난 손,
나의 구세주시여, 그 손을 보여주소서.

그리스도여, 만약 내 발걸음이 비틀거리면,
내가 뒤로 물러서고자 하려 하면,
사막이나 가시가 탄식을 자아내면,
주여, 당신의 발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피 흘리신 발, 못 자국이 선명한 발,
나의 예수님, 당신의 발을 보이소서.

오 하나님, 제가 감히 주님께
저의 손과 발을 보여드리나이다.

- 브렌튼 토번 배들리(Brenton Thoburn Badley)

chapter 13 십자가와 관계

크리소스톰은 성 루시안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성 루시안에게 그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 어느 지방 출신이야?”라고 묻자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당신 직업이 뭐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대답했고 “당신 집안은 무슨 집안이지?”에 대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성 루시안에게는 고향, 직업, 집안에 관한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십자가는 놀라운 혁명을 가져오는 법이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한마디로 모두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십자가 위에 놓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그는 자

신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의 옛 생활, 옛 세상, 옛 생활 방식, 그리고 옛 관계는 모두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십자가의 확신인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흡수해 버리며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킨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며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타국인이 된다. 십자가를 공격하는 자들은 우리의 원수가 되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의 참된 가족이 된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눅12:51-53).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만큼 잘 나누시는 분은 없다. 그분께서는 철저히 날카롭게 나누신다. 그분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려” 오셨다(마10:34). 그분의 십자가는 이땅에서의 가장 가까운 매듭을 끊으신다. 우리를 묶어 놓고 있는 그것을 잘라버리신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 자신에게는 강철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었다.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 위대한 사도요 영적인 아버

된 사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고후7:2-3) 바울이 자연적인 사고방식(살고 나서 죽는 것)과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까이 데리고 살다가 함께 죽기를 바란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고린도 인들에게 “이제 후로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고후5:14) 따라서 바울이 그의 자녀들을 마음에 둔 것은 그들과 함께 살고 죽으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함이었다.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했으나 “육신 안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십자가를 통해 사랑한 것이다. 그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갈보리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자식을 기르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매우 드물다.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말하곤 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에 폭 빠져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들은 자식들이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그리스도인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땅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들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아무도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자의 길에서 첫째 원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

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 실로 피는 진한 법이다. 참으로 헌신되고 희생적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들이 바로 자식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들의 육신적인 감정이-때로는 무의식적일 경우도 많다-“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셈이다. 십자가가 아들과 딸 위에 놓일 때면 어머니는 울부짖는다. “오, 이것만은 안 된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자신을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을 구원해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묘하고 위장된 사탄의 사랑을 감지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젊은이는 복되도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마16:23).**

나는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젊은 여인을 알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네가 중국에 가려가든 내 시체에 흠을 뿌리고 가라”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임종 때에야 이렇게 고백했다. “내 딸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어머니는 죽었고 딸은 중국으로 갔다. 은을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녀를 죽음이라는 도가니 속에 넣고 단련하여 “이기심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걷어내셨다. 결국 어머니는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이기는 하나 딸에게 훼방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중국으로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에 대해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오 아버지여, 도우소서, 우리의 가련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로 하여금 그들이
택하고자 하는 그 삶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을 잃을까 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나이다.

또 어느 그리스도인은 인도로 부르심을 받은 숙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한 여인으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부르심에 응했고 이는 결코 잘못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충고를 하였다. 그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머니 곁에 머물라고 조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도, 그녀의 명성에 대해서도 모두 죽어 있었다. 그녀는 잔인하고 몰인정하다고 비난을 받은 채 그녀의 주님(그분은 죄인들의 하나로 간주되었었다)을 따랐다. 그녀는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따라 인도로 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갈보리 저 건너편에 있었다. 그녀와 어머니 사이에는 갈보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나 갈보리는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갈보리는 또한 사람들을 이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어머니 눈앞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모습으로 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서는 그녀의 딸 안에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들려 올려지셨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그녀의 어머니 앞에 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명백히 제시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보게 된 것이다. 딸은 어머니를 마음에 품었다. 이는 그녀와 함께 살다가 함께 죽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들을 높이신다. 얼마 후 딸은 휴가차 고향에 돌아왔고 어머니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예수님 품에서 잠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인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였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서 자신이 아주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드디어 그의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범법자의 길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십자가의 정신에 일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드디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애야, 나는 너를 보호해 주시도록 혹은 네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분의 손에 맡기기로 했단다.”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사항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에서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

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였고 이들에게 동정심을 보인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다.』

그 방탕했던 아들은 현재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두려워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육신적인 관계에 대해 죽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갔고 주님을 섬기기에 이르렀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당시는 오늘날처럼 유약한 신앙이 아닌 진짜 믿음이 돋보였다. 유명한 존 녹스의 딸인 제인 웰시(Jane Welsh)는 교도관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 존 웰시(John Welsh)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포기한다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녀는 앞치마를 둘둘 말고서 “여기에 제 남편의 머리를 담아다 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오늘날의 미적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두고 그녀는 교조적이고, 사랑이 없고 고집불통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고 그녀의 남편을 자기만큼 사랑했다. 그녀는 남편의 투옥으로 인해 신앙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마음에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던 것이다.

십자가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혁명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친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곳이다. “죽는 것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노라”

나는 미모사(Mimosa)라고 하는

불쌍한 한 인도의 소녀를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위대하신 창조주의 사랑에 대해서 짙막한 메시지를 들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이 인간의 구속애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녀는 그에 대해 들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미션스쿨에 다녔던 그녀의 언니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의 잔인한 아버지가 그녀를 내쫓았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무려 22년간이나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런 처지에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짙막한 메시지를 그녀가 기억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혼은 그 사랑에 사로잡혔다. 실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집으로 쫓겨나 고통과 배신과 절망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속아서 불행하고 비참한 결혼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게으른

남편의 빛을 갚기 위해 밭에서 노예로 일해야 했다.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그녀는 드디어 그녀가 단 한 번 그것도 아주 조금밖에 듣지 못한 그분께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 하나님, 내 남편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의 형제도 나를 속였고 심지어는 저의 어머니마저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를 속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기다린 후 하늘을 쳐다보고는 두 손을 쳐들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에 대해 당신께 불쾌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시기 때문입니다”(그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당신(You)이라고 불렀다). 그 후 그녀는 오빠로부터(그는 모진 인간이었으며 이교도였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그 수준은 인도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도 잊어버릴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어서 서구 사회에서는 그와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그녀는 한 나이든 그리스도인(매우 미적지근한 신앙인이었음)을 우연히(?) 만났으며 그녀의 인생에 있어 두 번째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한 문장으로 된 간단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에 놀랍게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그녀에 대한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그녀의 오빠의 집에서 크게 모욕을 당했고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러나 미모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새롭게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 모든 사건을 하늘에 계신 그녀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

는지를 시로써 잘 표현하고 있다. 슬픔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어 가는 얼굴을 잊겠노라.
텅 빈 그것은 다시 채워지겠지.
내 안에서 깊은 탄식소리 들리나, 멈추어라.
헛되도다. 그 말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잊어버린다고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첫 번째 조치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간구해서 빈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행동하고 행동하리라,
어떻게든 애를 쓰면 내 영이 불붙겠지.
오 남자의 정열을 꺼버리는 눈물이며, 멈추어라.
헛되도다. 그 말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애쓴다고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니라.

혹은 이와는 반대로 뒤로 물러나 조용히 초연해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있겠노라.
어찌하여 인생의 풍랑 속에 빠지리요?
문을 걸고 고통과 함께 하리.

욕망, 그대는 나를 속이는 자니 그대는 멈추어라.
헛되도다. 이 말은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초연해한다고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나는 희생자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순복하리라”이다. 종의 억지 복종인 셈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복종하겠다 나는 패배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부를 가져가셨다.
오, 쓸데없는 불평일랑 그만 두라. 불평은 멈추어라.
헛되도다. 그 말은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어쩔 수 없는 복종 속에도 화평은 없느니라.

드디어, 복되도다, “드디어여”, 육신이 추구하던 모든 오류가 실패로 끝나고 실로 복된 순간이 오게 된다. 자아는 죽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받아들일 만하며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깊은 슬픔을 받아들이겠노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아들인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라.
이제야 그의 안에 있는 노고는 끝이 났다네.
그 말은 헛되지 않았네, 헛되지 않았네.
이는 기꺼이 받아들임 속에 화평이 있기 때문이라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앞서 하나님께 먼저 철저히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는 고통과 질병을 대항하거나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신경증 환자가 되어 버린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통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고는 거기에 대항한다. 이 불쌍한 혼들은 그와 같은 고통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내신 것이며 따라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야 승리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그분께로부터 왔다면 그분께로 가야 그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일이 분명히 마귀의 직접적인 역사요 따라서 저항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때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Carmichael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울부짖는 사자(먹이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음)를 대항할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숙명론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과 동역하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원해야 한다.

우리는 한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죄가 구속된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치유 역시 완전히 이룩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끈질기게 거부했다. 그들에

따르면 아무도 멸망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치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신경과 사고가 긴장되고, 결국은 치유는커녕 정신적인 병까지 얻게 되는 수가 있다. 아무것도 배운 바 없던 불쌍한 미모사는(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 그녀에게는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령에 의해 올바르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단번에 오지 않지만 평강은 순간적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다. 그녀는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평은 그 고통을 받아들일 때” 왔다. 그녀는 순수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 무엇보다 평강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욥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더라면 마귀를 더 잘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아내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자 욥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진대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무지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탄이 빼앗아 갔으니 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했다. “주신 분도 주시요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 나이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는 심한 병까지 얻는 고초를 겪었으나 전혀 ‘자아’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보다 더 마귀에게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지만 그에게서 조그만 틈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욥은 하나님께 반역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마귀는 욥을 어찌할 수 없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욥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욥을 본받는다면 결코 아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페이버(Faber)의 찬송을 들어 보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항상 승리하네.
그에게는 어떤 기회도 잃는 법이 없네.
하나님의 뜻이 그의 희생을 딛고 승리할 때
그에게는 실로 달콤하다네.
그가 복 주시면 질병도 유익하고
그분이 복 주시지 않은 것은 좋은 것도 나쁘다네.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것도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은 마귀의 책략이라고 쉽사리 주장할 수도 있었다. 사실 그 당시의 네로는 마귀의 종이였다. 그러나 바울은 네로는 간수에 불과하다고 무시해 버리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바울”이라고 불렀다. 바울은 네로의 치리 하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했다. 우리는 사무엘 러더포드를 기억한다. 그는 기쁘게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나는

곧 아버딘(Aberdeen)에 있는 왕궁으로 가노라”고 고백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체포되었고 그곳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네. 나는 인간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걸세. 심지어 나의 죄사슬마저도 금빛으로 빛나고 있네. 그 어떤 펜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네.” 이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혼을 마귀인들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마귀는 뜨거운 숯불을 너무 뜨거워 떨어뜨리듯이 그런 사람을 내버리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의 주님”(따라서 모든 상황에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방법인 것이다.

모든 일에서 온전한 정복자가 되려면 나의 주인께 철저히 순복해야 한다. 그분의 대문 위에 나의 귀를 대고서 귀를 뚫으면서(자진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서원임) “나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결코 주인님을 떠나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으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참된 헌신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중세 때 영적 전투에서 혁혁한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유명한 귀욤(Guyon) 여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치지 않는 자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완전히 헌신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바로 고난이 시험인 것이다. 모든 것이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자기의 길이 어긋나고, 기대감이 무너지고, 슬픔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에 기뻐할 수 있

는 자는 헌신된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시련은 기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참된 모습을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환영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잠시 있다 지나가 버리는 위로가 있는가 하면 참되고 지속적인 위로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할 때, 즉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신을 드릴 때만 찾아온다.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신비를 연상시킨다. 아담이 전능하신 왕께 반역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세계로 타락해 버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반역과 죄악으로 인한 파멸과 비참함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으로 상함을 입으신 구속주를 제시하셨다. 죄란 자아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아보다 더 강력한 분께서 자아가 차지해 버린 왕좌를 되찾으실 때까지는 자아가 지배하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께서 나를 총리를 시켜 주신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나의 왕좌를 내어 드릴 텐데” 실로 자아의 끈질긴 집념이다. 그러나 자아의 의지는 본질상 자기 파괴적이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지배 받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에 지배를 받게 되어 범죄케 된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명에는 가볍고 쉽다. 만약 이 명을 벗어 버린다면 그는 자아 의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끌레르보의 버나드, Bernard of Clairvaux).

자아가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해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머리로서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셔야 했다.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첫 아담이 자신을 드높인 반면 마지막 아담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첫 번째 아담의 교만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낸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궁궐이 아닌 말구유를 택하여 탄생하셨다. 그는 지상 생애 동안 멸시 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던 것이다. 첫 번째 아담은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낙원에서 시험을 받고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께서는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들짐승과 같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낸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세 번 드리신 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 완전히 자아를 거부했던 그분의 생애의 절정이었다. 사실 그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분은 자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자진해서 침뱀음과 갇은 모욕을 당하셨고, 자진해서 범 죄자로 취급 받았고 자진해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 치욕적인 방식으로 매어 달리셨다(헤겔, F. J. Huegel). 이분은 요한이 외친 대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다. 사람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고 조롱하였다. 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대적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신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감당하셨다. 그분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아담께서는 첫 번째

아담의 자아를 처리해 버리신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인 것이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고
비참함을 스스로 원하셨고
갈보리로 스스로 가시기를 원하셨고
영광을 제쳐놓으시고 나무에 달리기를 원하셨고
고난을 짊어지기를 원하셨고
당신과 나를 위해 죽기를 원하셨다네
이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시라네.

chapter 15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2

순종과 고통은 육신과는

철저히 모순된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자아가 살아 있는 곳에서는 자아와 부딪히게 된다. 자아는 고통을 거부하며 저항한다. 고통은 육신에 의해 철저히 거부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무죄(innocent)하셨지만 그가 당하신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죄와 자아의 의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받들고 고통과 수치와 죽음 앞에서도 그분의 뜻을 붙드시기 위하여, 극심한 자기 부인과 모든 시험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이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미모사가 드디어 자기 언니 스타

(Star)를 미션 학교에서 만났을 때, 미모사는 언니의 성경과 책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언니는 그분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고통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파멸, 사악함, 비참함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자기 뜻을 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도 없고 다른 목적도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대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 고통과 고난과 죽음마저도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향하신 사랑을 제거할 수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행하신 분은 영원히 거하신다. 세상은 지나가 버린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셨을 때 그분께서는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육신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인간의 육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몹시 거부감이 드는 것들뿐이었다. 인간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을 맞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려 대며, 고통과 책망과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외에도 주님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하다. 이와 같은 요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무기력함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뿐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공격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의지를 지적하고 그것과 모순되는 것들을 요구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자 하셨다. 바로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리 강론, 교훈, 비유 등을 통해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르치셨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며 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케 하면 잘라 버리라고 하였고 우리의 눈이 우리를 실족케 하면 뽑아 버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혼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이 말은 매우 “엄격한”말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드러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새로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천연적인

성품”과는 모순되게 행하셨다. 십자가야말로 이 모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지신 십자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보이신 완전한 순종의 가장 숭고한 표현이셨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적인 십자가를 배우도록 하였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셨다.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성품을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오신 것이다.

손이 말라버린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그의 손은 불구였고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었으며 무기력할 뿐이었다. 그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붙들 수 없었다. 그는 그 손으로 쟁기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판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군중 앞에서 이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명령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고 불합리한 것이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만 한다.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마른 손에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 즉 주님의 말씀을 택하고 자신의 자아를 버린 결과였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도 해야 할 그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에 대해 우리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 의지의 결핍이다. 주님의 명령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 준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고 우리의 원치 않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명령하신 불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당신의 손은 말라붙어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불가능한가?

어쩌면 당신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말씀하신다. “네 손을 내밀라.” 당신은 당신의 손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만 지시기 원하신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구세주께서는 그 이외의 것은 결코 받아 주지 않으신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분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당신의 말라 버린 손에 그분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당신은 놀라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이 원칙이 구약의 율법의 원칙인데 어찌 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느냐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죽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목적(뜻, 목표)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면상 충분히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혹은 그 단체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구세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당신의 말라 버린 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오는 그 순간 입을 열어 증거해야 한다. 당신은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것이다. 죽고 나서 입을 열라, 죽으면 살 것이다. 죽으라(자아에 대해), 그리고 담대히 나서라. 그리하면 당신의 말라붙은 혀를 가지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자아가 그 과정에서 죽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자아가 십자가를 붙들 때 사탄은 그의 요새를 잃게 된다.

당신의 다리는 마비되었는가?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다가설 수 없는가? 그분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가 없는가? 당

신은 어쩌면 “주여 그곳만은 안됩니다.”라고 불평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꼭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자아는 다른 곳에는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은 그곳만은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아를 왕좌에서 내려오도록 하셔야 한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이야말로 당신이 명백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분은 당신의 발을 통해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박는다. 주님께서는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다. 당신보다 훨씬 더 심한 불구자도 그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다리에 힘을 얻어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당신의 절름발이 발은 치유된 것이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당신을 굴복시키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은 걷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달콤하다고 노래할 것이다. 병어리의 입은 열릴 것이고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다. 더 나아가 “절름발이가 수사슴처럼 뛰놀 것이다.”

십자가의 위대한 원칙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에 나오는 여덟 가지 복은 천년왕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육신적인 자아에 대해 거스르는 내용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의 생활 여건이 훨씬 나아지게 될 천년왕국에 가서야 이 높은 수준의 계명들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초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사자의 발톱에 죽어 간 것은 어떤 일인가? 어쩌서 그들은 사자가 짚을 먹게 될 그 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말

인가?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명령들을 인간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팔복 설교를 하신 것은 “나에게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그의 모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제쳐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하여 자아의 사악한 교만과 자기 존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헤겔(F. J. Hegel)의 말을 들어 보자.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던 것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과 자아의 연합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아끼지 마시고 제거하소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로 자아에 대해 죽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십자가

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받아들인다. 그 어떤 다른 종류의 구원도 허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신이 인생에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매번 “죽을 기회”를 엿보라. 당신이 하나님께 살려 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 당신의 바라는 바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이미 무시되었는가? 당신의 지혜는 내던져졌는가? 당신의 마음의 상처는 어떠한가? 당신의 의견이 조롱을 당했는가? 당신은 거짓 비난을 받았으며 당신의 이름은 악한 것으로 낙인 찍혔는가? 이 모든 상황 중 그 어떤 것이라도, 혹은 모든 것을 당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매 상황마다 당신의 교만과 이생의 자람에 대해 죽을 기회를 얻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받을 것이다. 당신의 자아 의지, 자기 의, 자기 방어는 실로 당신의 가장 커다란 대적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참된 위치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의 위치로 당신을 이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생명은 십자가에 못박힌 생명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중심을 향한 생명이요 하나님께 고정된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이 지상 생애에서 “나의 평안”, “나의 기쁨”에 대해 최초로 말씀하셨던 분(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밤에 평안과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이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

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인 죽음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그 순간 그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잘 말했다.

『기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 취하셨고 결국은 아버지가 내리신 잔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다. 이 결단은 피를 요구했고 결국 그분은 피를 대가로 치르셨다. 우리 모두 구세주이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즐거워하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숙이고 하나님의 복된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고 의지를 바친 사람으로는 조지 폭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실로 “나무처럼 곧았고, 종소리처럼 순수했다. 우리는 결코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반면 그가 거짓 고소를 당해 죄수들과 함께 투옥되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곳은 더럽고 추잡한 곳이었다. 남녀 모두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비록 형편없는 곳이기는 했어도 죄수들은 나에게서 모두 사랑스러웠고 내 말을 잘 들었다. 그들 중 몇몇은 진리를 깨닫기도 했다.” 그는 후일 이렇게 고백했다. “나

는 감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 없는 그런 감옥은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구령의 기쁨은 얼마나 실제적이며 또 전염성이 강한지!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벧전4:19)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빌1:29). 그분을 위해서나 의나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귀용 여사는 이와 같은 복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 보자.

『내가 다른 사람의 혼을 위해 수고하면서 견뎌 내지 못한 고통이 어디 있었던가? 그러나 이런 고통들은 나의 용기도 나의 열심도 결코 꺾지 못하였구나. 죄인들과 방황하는 자들에게 화평과 사랑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시련에 못지 않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나를 준비 시키셨다.』

chapter 16 십자가와 훈련1

마틸데 브레데는 핀란드의

지방 장관의 딸로 남작 부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교양 있고 교육받은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 그녀는 십대 시절 십자가에 사로잡혔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녀는 핀란드의 죄수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조차 죄수들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고 죄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어나기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스스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삶을 선택한 삶은 실로 커다란 대조를 이루었다』

어네스트 고든 씨는 핀란드의 죄수들의 마음에 그녀가 심어 놓은 사랑에 대해 “우상”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말

했다.

『과거에 죄수였던 한 사람이 그녀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는 그녀 곁에서 마룻바닥에 누워 잠을 잤는데 이는 그녀를 전혀 귀찮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배려였다.』

고든 박사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사역과 자기 훈련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불면증에 시달린 후 께 그녀는 그녀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할 특권을 갖고 있노라’ 그녀는 피곤한 몸으로 층계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가련한 내 육체여, 그대는 얼마나 피곤한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노라. 이제까지 너는 사랑에 고무되어 순종과 인내로 일을 수행해 왔노라. 나는 네게 감사하노니, 이는 네가 나를 곤경에 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로 놀라운 해방이요 놀라운 구속이 아닐 수 없다. 더 낮고, 더 천하고, 욕심 많은 육체로부터 해방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속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육체적 욕구를 막지 못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마틸데 브레데처럼 피곤한 육체로 의지에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자야말로 해방된 자요, 마음이 가벼운 자이며 염려에서 벗어난 자유인

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쁜 마음은 명약보다 더 낫다. 독자 여러분은 육체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육체에 종 노릇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하여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훈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승리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으라.

이와 같은 해결책에 대해 놀라거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모호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목적과 결의가 끝장나기까지는 자기 훈련 역시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바울의 고뇌(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고... 로마서 7장)에 빠져 버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자기 훈련에 앞서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에 대해 강조했었는데 이를 보고 한 사역자가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 왔다.

『내가 아는 한 기도 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듣는 것은 나에게 그리 유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위한 꾸준한 노력, 시간, 수고 등은 오히려 나를 낙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시험해 보았으나 그 결과는 늘 몹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머레이는 이렇게 답변하였다.

『나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너무도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역자는 다시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살아 계신 당신의 구세주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시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생활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에 대해 머레이는 그 사역자의 주장이 옳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육신 안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는 없다. 기도가 없는 생활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성령 안에서의 삶이 결핍해 있음을 보여준다. 육신의 사망을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이를 위해 저술되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복된 뜻에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해방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만이 이 주제에 대해 해결책을 갈망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 지도자로 선택된 자는, 농사지를 밟아 쟁기를 피할 수 없고 포도나무가 전지하는 칼을 피할 수 없듯이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칼을 피할 수가 없다. 허버트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계에는 엄격한 훈련(혹은 자기

통제)이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잔인한 것 같으나 매우 유익한 것이다.”

잘 훈련된 사령관이 부하를 치열한 전투로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스릴이 넘치는 일은 드물 것이다. 스스로 잘 훈련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훈련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매끈한 차림의 한 장교가 아라비아 군의 지도자 파이잘(그는 훗날 이라크의 왕이 되었다)을 설득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는 파이잘이 그의 부하들을 시켜 염소처럼 절벽을 기어올라가 철도를 파괴한다면 전쟁은 끝나고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에이미 카마이클). 파이잘은 그의 동료의 “매끈하게 빠진” 몸매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절벽에 기어올라가 본적이 있소?”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처럼 주일학교 교사든, 설교자든, 선교사든 간에 주님의 군사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은 남을 이끌기 전에 자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다.

말랑말랑한 청년들을 전쟁에 내보낼 전투 요원으로 개조하는 엄청난 임무에 접한 연합군 지도자들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전쟁 초기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독재자가 전제국가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훈련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군의 군 관계자들은 독재 하에서 철저히 훈련된 군대에 비해 전혀 훈련되지 못한 병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시간을 벌어 유약한 훈련병들을 잘 훈련시켜 전투에 준비된 용사로 키우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되었다. 그 결과 현대의 교육제도가 주창하는 맥없는 철학은 격퇴

당하고 엄격한 훈련이 도입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 지도자 중의 하나였으며 수 년 동안 민간인들을 훈련시켜 군인으로 키우는 데 헌신했던 한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얼마 동안 우리는 소위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들 중 3분의 1은 군복무에 전혀 적합하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그리 높지 않은 기준을 통과해 군에 입대한 자들도 신체적인 준비가 되는데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며 사기가 진작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군대에서 가장 큰 임무는, 젊은 장교와 사병들로 하여금 안락주의를 무너뜨리고 이기심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한편으로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정신의 배양을 통해서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격 정신을 함양해 주어야만 한다. 당신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들어와 수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지대한 노력, 이기심의 배제, 끝없는 고통, 자기 희생 정신 등에 대해 배우기까지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한 바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군사 훈련이 우리의 안락 지향주의를 부수고 우리로 하여금 지대한 노력, 이기심의 철저한 제거, 무한한 고통, 자기 희생 능력 등을 키워 주님을 위해 우리로 헌신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야말로 최상의 성과가 아닐 수 없겠다.

우리의 교육 체계와는 반대로 스파르타 식 교육 방식은 실로 엄청난다. 옛 그리스 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훈련을 통해 아이들을 키웠다. 일곱 살 때 부모 곁을 떠나는 소년들은 그 후 다시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음식을 스스로 준비해야만 했고 여름과 겨울에 똑같은 옷을 입어야 했으며, 풀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고 축제 때에는 인내를 시험 받기 위해 채찍질을 당해야 했다. 어떤 아이들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느니 차라리 채찍에 맞아 죽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인들이 “완벽한 인간형”이라고 부르는 모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고딕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 운동 선수들의 절제는 범죄와 관련된 쾌락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즐거움에도 해당된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 역시 죄악에 관련된 쾌락뿐만 아니라 비록 악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간을 낭비하거나 도덕적인 힘을 축소시키는 모든 습관이나 즐거움에 해당되어야만 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얼마나 잘 속아넘어가는지! 운명은 우리를 망치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욕구를 거절함으로써이고 또 하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재앙을 모두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남극을 탐험한 에드워드 윌슨 씨야말로 십자가의 영웅에게 해당되는 절제의 사람이었다.

『그의 영향력의 비밀은 자기 훈련에 있었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습관처럼 자기 훈련을 습관화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늘 훈련했고 그 결과 그의 생활은 균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동료들에게 충실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훈련이 제자의 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원하여 순교자의 삶을 사셨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제자의 도를 상징하는 가장 고상한 상징이 군사 훈련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신약 성경 안에는 군사 훈련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바울은 달리기, 뛰기, 겨루기, 훈련, 전투 등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바울에게는 인생이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싸움과 투쟁이 바울의 인생 여정이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안락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 나님의 뜻대로 살며”(딤후2:11-12).**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은혜는 거부하려 한다. 바울은 “은혜 안에서 강건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 바울은 소심한 디모테를 격

려하며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러 일으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다.”

훈련이란 말은 오늘날의 세대에게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말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도는 모든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비록 참된 훈련이 육체에게는 힘들겠지만-“십자가치고 부드러운 것은 없다.”-훈련의 주된 목적은 우리로 힘든 싸움을 준비하고, 자기 절제를 이룩하며, 새로 다진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함이다. 참된 훈련은 만약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더 나은 군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려움도 자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

이스라엘의 전쟁사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한다.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소집에 응했다. 그러나 그 중 22,000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슬그머니 고향으로 돌아갔다. 겨우 10,000명의 용감한 군사들이 남았던 것이다 그러나 용감한 것으로는 불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군사를 선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다. 한번은 캐나다에서 다리가 무너져 내려 많은 일꾼들이 죽은 적이 있었다. 대들보가 약해 무게와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실시하셨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놀라운 시험 방법이었다. 10,000명의 군사들은 모두 물로 인도되었고 물을 마시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적을 눈앞에 두고, 큰 전투를 눈앞에 두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의 느낌에 근거해서 살아온 자들이었다. 자기 중심적이고 상황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루아침에 훈련된 병사로 변화

될 수 없다. 그들은 복종을 배운 적이 없고 그들의 뜻만을 따르는 삶에 익숙해 있었다. 비록 그들의 타고난 성품이 용감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데에 젖어 있었고 결국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는 부적합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전투에 합당치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보아 전쟁 당시 영국은 고난에 처해 있었고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영국 정부는 로버츠 경을 보냈다.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임무를 맡을 것인지를 묻자 그는 차분히 “그리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 임무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수상은 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이에 대해 로버츠 경은(야전 사령관이 됨) 이렇게 답변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국왕을 위하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든 간에 군사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드온의 나머지 300명은 다른 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자기 훈련이 된 자들로 자신들의 영을 통제할 수 있었고 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손바닥으로 한 모금의 물만 마시고는 떠났다. 기드온은 이제 전투에 합당한 군사, 즉 용감할 뿐 아니라 잘 훈련된 용사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용감성과 아울러 질서 있는 생활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은 전쟁의 긴장뿐 아니라 “어리석음”과 “불합리”라고 하는 대적도 처리해야만 했다. 항아리, 등불, 양의 뿔나팔을 든 하찮은 삼백명이 메뚜기 떼 같이 많은 135,000명을 대항해 싸우는 것은 어리석음과 불합리 그 자체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의식적인 순간에 그의 군사를 시험하신다. 외부적 제한이 없는 가운데서 보여주는 우리의 반응이야말로 우리의 근성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우리는 긴

장을 극복하기 위해 근성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현대 사회라고 하는 무게와, 조류 그리고 돌팔매질을 견뎌 내는 근성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 D. M. 팬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기드온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교회들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군사를 분류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좋은 군사가 되도록 택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쁘시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은 자신이 그 길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심야 전투에 처해 있다. 어두움은 더욱 깊어 가고 있다. 낮이 아님을 잊지 말라. 밤에는 특히 훈련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가운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우리의 선호, 감정, 즐기고자 하는 욕망 등을 군사 훈련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 수 있을까? 진주만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밤은 어두우나, 어찌면 고향에는 더 가까이 와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처럼 한 밤중에도 행군할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말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해 싸우고 피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동안 평안한 침대에 누워 하늘나라로 가는 꿈을 꾸고 있다(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폴레옹은 피드몽 전투에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대포도 없이 싸웠고, 다리도 없이 강을 건넜고, 신발도 없이 강행군을 했으며, 독한 술도 없이 야영을 했고,

심지어 때로는 굶기까지 했다. 여러분의 인내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병사들이여, 그대들은 아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갈보리의 피와 고뇌, 수백만의 혼들의 울부짖음,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놓치게 될 커다란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안락을 내던지고, 하잘것없는 후생일랑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 게으름을 그치자. 우리의 나폴레옹께서는 잘 훈련된 희생적인 병사를 찾고 계신다.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chapter 17 십자가와 훈련2

육신 세계의 일들을

살펴본다면,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책해야 할 것 같다. 육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며 때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일단의 사람들이 얼마 전 무려 27,000피트의 높이까지 올라가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함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다고 한다. 내레이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정신(spirit) 무장이 덜 되었다”고 한다. 등반에 성공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는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들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그의 정신(spirit)이 그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강한 정신력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최후의 처절한 노력을 보였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다. 그 다큐멘터리의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정신이 육체를 이끌며 육체는 정신력에 달려 있다.” 이들 등산가들은 무시무시한 시련을 통과했고, 사상자를 냈으며-다리가 부러진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발목까지 동상에 걸린 사람-폐렴에 걸리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친구여! 그대는 등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이들의 대열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자신을 충분히 훈련하여 정상을 오르는 군사로서 육체를 향해서 “자, 옛 육체여, 올라오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집된 자라기보다는 “보호를 받거나 응석이나 부리면서 유모차에 앉아 놀며 자신들의 교회 속에서 안주하는 자들”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한 혼을 구원하시자마자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이다(웬튼).

자기 훈련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금욕주의자나 수도사니 하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금욕주의자란 비난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금욕주의자도 수도승도 아니었지만 그는 “애착과 정욕을 지닌 육신”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위협스러운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그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육체를 두려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 있었다. 그는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기뻐하였다. 도나버 공동체(Dohnavur Fellowship)에 속해 있던 한 사역자는 휴일에 대해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이곳에는 모든 것이 너무도 안락하고 좋아서 나는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이 약해질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 너무도 모든 것이 편하고 안락해서 게으름과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내적인 훈련을 해야 할 필요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

유약하게 만드는 교묘한 사랑에서
 나약하게 만드는 손쉬운 선택에서
 (이렇게 해서는 정신 무장이 될 수 없으며
 주님께서 가신 길도 이 길은 아니라네)
 주의 갈보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오, 하나님의 어린양이시여, 나를 건지소서.

- 에이미 카마이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피를 흘리기를 멈추면 교회는 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 성장한다. 평강과 풍요는 교회를 성장케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칼을 가져오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약해지고 말았다. 우리는 군사이기를 그만두었고 요새를 공격하기를 그만두었으며 희생하기를 그만두었다. 우리는 영적인 사교 클럽을 원할 뿐 낡은 옷을 걸친 군대는 원치 않는다. “부드러운 분위기”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옛날은 가고 흔들의자에서의 안락함만 남아 있다.” 우리는 한때 고통을 당하며 순회 전도를 했던 옛 설교자와 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 그는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난 지 한 시간 후에 그는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식사였고, 아주 기분 좋게 먹었소”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의 설교는 맥이 없었다. 그는 거의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한때는 주의 군사였으나 이제는 유약해지고 말았다. 그는 더는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로봇 머레이 메케네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탄이 욕심 많은 사역자를 미혹하여 칭찬을 사랑하고, 쾌락과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는 이미 그의 사역을 망쳐버린 것이다.” 메케네 씨는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등산이요, 투쟁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전쟁은 휴식도 없고 중단도 없다.

게으른 육체가 수군거리려 할 때
 편안함이 우리를 마법으로 유혹하네.
 저녁 기도의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세.
 주의 눈썹에서 가시관을 바라보네
 주께서 가신 길엔 핏방울이 떨어지니
 오 우리로 돌이키지 않도록 막으소서.

-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 사역자 혹은 소위 “전임(Full Time)” 사역자가 아닌 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훈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농장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어떻

게 자신을 훈련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인가? 여기 자기 훈련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오늘날에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심야 모임과 파티 등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특히 도시에서는 더 심하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밤늦게 시간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분의 말씀을 위한 시간, 그리고 기도를 위한 시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로 그와 같은 거짓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즉시 중단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해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라.

거룩하지 못한 정서 생활과 육신적 애착을 단절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한 일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무엇이 아직도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 순간 자아를 부인하라. 이것이 바로 훈련이다.

어떤 이들은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외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당하거나, 의심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당하는 일들을 견뎌 내기를 배워야 한다. 그들의 “매일의 용광로”는 사람의 혀이다. 그가 감당해야만 할 몫인 것이다. 그야말로 자기 훈련을 달성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 패배, 오해, 목살 당함과 같은 것들을 견디기 위해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일에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배치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충성하라, 그곳에서 만족하라. “다른 환경”을 찾지 말라. 당신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욕하며, 시기심이 많은가? 우리는 “차분히” 자신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결국 심술궂게 굴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출신의 한 위대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어쩔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배움으로써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도 훈련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자식을 훈련시킬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자식들은 합당하고 경건한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는 훈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육신 위에 십자가를 놓아 본 적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법이다. 옛 속담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한 것은 진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나약하고 민감하며, 신경질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번민, 귀에 거슬리는 소리, 번잡한 사람, 침대에 부착된 쇠막대기를 두드리는 소리, 혹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비뚤어지게 달린 그림, 색깔이 뒤섞여 있는 것, 거꾸로 꽂혀 있는 책, 침구가 하나라도 없어지는 일 등과 같은 사소한 일에 괜히 짜증이 나고 못 견딜 것 같은 날이 있다. 이런 때에는 차분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승리는 자아로부터는 쟁취될 수 없다.』

그렇다면 훈련이란 무엇인가? 앞서 언급된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 훈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완성된

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쉬운 일을 거부하고 어려운 것을 택할 때,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이 훈련된 사람이다.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지만 불평을 하지 않으며, 날씨는 덥고 피곤하지만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학교 일과 집안일을 할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이다.

사탄이 “대충 하지 그래”라고 속삭일 때 “천만에”라고 대답할 수 있고 사탄이 “좀 쉬었다 하지 그래”라고 속삭일 때 “천만에”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자신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기다릴 줄 알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이다.

모든 죄악된 일, 그 누구도 모르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일마저도 극복하고 승리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우신 나의 왕을 위해 살 때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는 내적인 욕구를 무시해 버리고 오히려 남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음성에 따라 항상 사는 것을 배울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이다.

다윗은 늘 자기 곁에서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이는 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함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들도 자신들을 침입하는 이웃 도시를 완전히 섬멸하지 않았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함이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훈련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의 훈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훈련이 부족한 이유는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지 않으려는 느슨한 자세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 인내하지 말고, 죄를 지은 자들을 동정하지 말고 아

끼지 말며 그들의 죄를 숨기지 말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기를 거부한다. 이로써 교회는 참된 징계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오늘날과 같은 느슨한 시대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식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위해 자기 자녀를 엄격한 훈련을 시키는 신학교에 보냈다. 그들은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느슨한 교육 제도에서 자식들을 구출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다. 이 젊은이들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 그의 자식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짐작도 못 했을 것이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인 테일러는 훈련된 삶과 리더십의 가치를 중국 선교를 이루어가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 자신이 그와 같은 훈련과 리더십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을 매우 엄하게 훈련시킨 사람이었다. 테일러의 전기집 “한 혼의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제임스 테일러는 비록 엄하고 성격이 급하긴 했지만 그가 아들의 삶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실로 엄격하게 자식을 훈련시켰다. 이와 같은 훈련이 없었더라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날 느슨하고 게으르며 쉽게 살려는 경향이 만연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마저 자식들이 그저 행복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임스 테일러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야만 한

다. 사람들 중에는 헌신되고 은사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수는 주님의 사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실로 철저히 자기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땅히 행해야만 할 것을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했다. 안일, 쾌락, 자기 개선(향상) 등은 나중 문제였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믿음은 말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항상 실제적인 일에서 돋보였다. 그는 자기 자식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잘 보호 받고 심지어는 복종을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식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했고 매일 자기 임무에 충실하도록 훈련시켰다. 이로써 그의 자식들은 커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chapter 18 십자가와 열매 맺기

도나버 공동체(Dohnavur Fellowship, 인도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러 간호원들이 한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으나 그녀는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원들이 말하고 있던 것들이 단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복음에 대해 전혀 흥미도 안 가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코힐라(Kohila)라는 간호사가 병든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한동안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녀가 코힐라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그 일을 하십니까? 어째서 그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시나요?” 이에 대해 코힐라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들

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분에 대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 안에서 그분을 보았어요, 이제는 그분이 단순히 허구 속의 주인공이 아니랍니다.” 그녀는 코힐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 지 두 달 후에 “죽었다”. 튼튼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그렇게 “죽었던” 것이다. 그 죽음은 그녀에게 그녀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의 종말을 뜻했다. 그녀는 새로이 얻게 된 주님을 위해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평안이 아닌 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무관심하고 무지한 얼굴 앞에 코힐라를 통해 “십자가에 못박힌 채로 분명히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오로지 이 방법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바울은 갈라디아 인들에게 그가 전파한 복음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명백히 제시되지 아니하였느냐?”

필자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분도 한때 무지막지한 젊은이들에게 조롱을 당하였고 무지막지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에서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가 아니면 그의 원수들의 음모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자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달리신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이 나이 든 성도가 당한 불의와 박해는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을 그들의 구속주의 십자가의 상처로 이끌었다. 로버트 머레이 메케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진 사람들, 즉 영적인 비밀을 이미 습득한 사람들에게 의해 주님께로 회심해 왔다. 믿음의 비밀을 습득한 자들은 십자가의 못에 매달린 옛날식 종교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서 고통스러운 숙청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마리아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 왔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특별히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부러먹는데도 당신은 그들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거든요’ 그녀 역시 나에게서는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후일 그녀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르바라입니다.』

몇 개월 후 마리아로부터 또 다른 편지가 왔다. 거듭난 바르바라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고백했고 그 때문

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마리아의 편지는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

『나는 어제 처음으로 사랑하는 바르바라를 감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말랐고, 창백했으며 매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만이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의 평강과 심지어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이와 같은 평강과 기쁨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올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창살을 통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나요?’ 그녀는 단호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풀어 준다면 다시 그들에게 가서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분을 위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것에 너무도 마음이 기쁩니다.’』(William Newell의 Romans에서 인용하였음)

우리는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먼저 분명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바르바라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분께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녀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마리아가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품고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녀 안에서 그리스도는 제시되었다. 원수를 사랑했던 마리아의 그 사랑이 바르바라의 마음을 열어 준 열쇠였던 것이다.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아름다움의 환상을 본 자는 모든 유익을

손해로 여겼습니다.

당신을 얻는다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십자가를 나누어 갖는 것만이 오직 그가 원하는 바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 위에 떨어질 때 그는 조용히 홀로 걸어갑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의 마스터 키를 들고 모두의 마음을 열고 갑니다.

길에서 그를 지나치는 짐진 흔들은 뒤돌아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고뇌의 눈물이 맺힌 채로, “당신은 아는구려, 당신은 나를 이해하시
는구려”라고 속삭입니다.

- 애니 존슨 플린트(Annie Johnson Flint)

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지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죽어 가는 흔들에게 그분을 보여야 한다. 단지 그분에 대해 설교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분께서 제시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죽음뿐이다. 십자가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것이다. C. M.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회의 상징은 불타는 가시덤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며, 열린 책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며, 영광의 왕관도 아

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매우 가엾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보이게 하소서

그분의 놀라운 열정과 순수함을 보이소서.

그러나 즐거움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 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행복한” 체험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행복을 원하신다. “성령의 기쁨과 함께하는 깊은 고통(슬픔)”이야말로 유쾌함이나 피상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깊은 체험이다. 당신과 내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는 길이요, 희생의 길이며, 죽음의 길인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에 대해 성령 충만하고 크게 쓰임을 받은 바 있던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분을 인격화해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제 안에 있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열쇠를 주신다면 저는 그 어떤 고통이라도 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느냐고 물으면 저는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

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얻었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첫째도 희생이요 둘째도 희생이며, 셋째도 희생이라고 대답하렵니다.』

십자가의 원칙은 우리 생활의 법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갈증이 있을 때 생수를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를 간구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양이 되심은 물론 법을 주시는 입법자이시어야 한다.

희생이야말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법칙이어야 한다.

오, 나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한 십자가여

나는 그대로부터 감히 달아나지 않겠소.

나는 인생의 영광을 먼지 위의 시체처럼

내려놓으리니.

그리하면 그 땅 위에서 영원한 붉은 생명이

꽃피우리다.

오늘날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은 실로 엄청난 곡식을 쌓아 놓은 창고에 불과하다. 그 씨앗은 뿌려지지 않은 채 쌓여 있어 케케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하며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쥐새끼들이 망쳐 놓고 만 느낌이다. 각각의 씨앗들이 흩어져 뿌려지기만 한다면, 어둡고 젖은 땅 위에 떨어지고 묻혀서 홀로 외로움과 죽음을 견뎌낸다면, 오!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단체들이 크게 증가했다. 실로 크게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

고 있다. 단체 행동 정신, 육신적인 애착, 그리고 감정적이고 천연적인 본성 등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낱알”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영적인 승리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분리되어서”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고독과 노예 생활과 의심과 비방 가운데 산 덕분에 승리하여 왕이 될 수 있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의 두 발로 걸어서 스스로 십자가로 가 자신을 모리야 산 위에서 장사 지내야 한다. 모든 순교자들 역시 이 외로운 길을 걸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얻으려면 잃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낱알은 번식하려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황금빛 다발을 흔들어 보일 때마다

누군가의 낱알이 떨어져 죽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의 혼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누군가가 씨웠고 울었고 기도했으며, 지칠 줄 모르고 지옥의 군대와

씨웠음을 잊지 마십시오.

피상적이고 모조품에 불과한 신앙생활에 지친 분들이여, 죽은 일들에 지쳐 버린 분들이여, 열매 없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완전히 지쳐 버린” 여러분들이여! 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네가 뿌린 것이 죽지 않는다면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가? 당신은 죽기까지는 살 수가 없다. 죽음이 사는 것보다

앞선다. “날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셨을 뿐 아니라 그 위에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면에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쉽고 편안히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따로 계시고, 동시에 예외적으로 고통 받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따로 계신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당신은 그분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가? 죽음은 여전히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다. 이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진 생명이요, 배가 되는 생명이요, 열매 맺는 생명이다. 자신을 바치는 것이 곧 자기를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를 보존하려다 보면 자신을 망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다』

우리는 결코 이 영원 불변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다. 자기 희생만이 생명을 번식하는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죽음이 생명을 가져온다네.
저 장미가 살아 숨을 쉬려면 뭔가 생명체가 먼저 죽어야 한다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가져다 준 펜 루이스 여사는 그녀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 받고 난 후에 영적인 위기를 겪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녀는 승리에 찬 기쁘고 행복한 체험을 즐기

고 있었을 때,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 보자.

『내가 그 책을 읽어 갈 때 나는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보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책을 내던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안 돼, 나는 그 길을 안 갈 거야. 그 길로 가면 나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 다음날 나는 다시 그 책을 집어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부드럽게 속삭이셨다. ‘만약 네가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이것이 그 길이니라.’ 나는 ‘그래야 할까? 안 돼!’ 라고 말하고서는 그 책을 다시 치워 버렸다. 그러나 삼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그 책을 집어 들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열매를 원한다면, 이것이 그 길이니라. 나는 네가 원한다면 네가 느끼고 있는 기쁨을 앗아가지 않으려다. 원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렴. 그러나 그것은 네 자아를 기쁘게 하지만, 이 길은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려느냐?’ 그때 나는 그분의 은혜로 ‘저는 열매 맺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내가 얻었던 체험은 사라졌다. 나는 얼마간 너무도 캄캄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것은 신앙의 흑암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그것을 얻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죽음의 길을 갔다. 나는 이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열

마 후 집회가 열렸을 때 그 열매는 드리냈다. 그때 이래로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행함(doing)”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죽음(dying)”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버리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고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 상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다.

chapter 19 매일 지는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며 한 동안의 보낸 후에야 그리스도안에서의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다. 사도 바울마저도 회심 이후 내적인 삶에서 겪게 된 쓰라린 체험을 고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후일 그는 로마서 6장 11절이 기록된 사실을 배우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는 지긋지긋한 자아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여기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던 것이다.

회심 후 우리는 우리 죄로 여전히 가득한 자아의 모습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한다. 우리는 의에 굽주리고 목마르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는 생명수의 흐름을 가로막기 일쑤이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흐름은 뒤섞이어 흙탕물이 되고 만다. 이에 우리는 투쟁과 기도와 노력을 동원한다. 우리는 반복해서 결단을 한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적인 십자가 처형을 체험해야 함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심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항상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 자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수 없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망 선고에 서명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과 더불어 생명과 죽음 안에서 연합했다는 사실을 붙들게 된다. 우리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이로써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위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 죽음의 길을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계속적인 배움이 뒤따라야 한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생명을 매 순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에게 “매일 지고 갈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 길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눅9:23).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당시 수많은 범죄자들과 살인자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행렬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된 십자가와 “매일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 Moule(모울) 주교는 이를 두고 “무한한 역설”이라고 불렀다. 한편으로는 참되고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단 한 번 온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 전역에 걸친 순복이요, 평생을 지속해야 할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삶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태도”인 것이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다. 기성복처럼 몸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의 거룩함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 승리의 삶에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면, 그리스도인 일지라도 평생 동안 자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욱 깊게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매일 지는 십자가”에 대해 모울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중단도 없고, 휴일도 없으며,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리고 또 내일… 이렇게 이어진다. 매일의 십자가!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자아 포기를 더 깊이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옛 목표, 목적, 계획, 그리고 자아 중심의 삶을 주관했던 옛 영을 수치스럽게 하고 죽음에 넘기게 하는 것들이다.』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시험들, 어려운 환경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아의 뜻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우리

가 앞에 놓인 현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십자가를 향하고 부싯돌 같이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매일의 순례 길에서 그분의 발 밑에서 기다리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자아를 부인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음에 넘기는 도구인 셈이다.

더햄(Durham) 주교는 매일의 십자가를 이렇게 요약했다.

『매일 해야 할 매우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자신의 선호를 포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누적된 의무들, 갑자기 생기는 일들, 원래의 일과를 벗어나게 하는 사건의 발생... 과거에 당신은 이런 일들로 인해 신경질을 냈다. 아니면 적어도 ‘속으로’ 짜증을 내곤 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난 후 당신은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옛 사람을 지배하던 자아를 더욱 철저히 척결하고 죽음에 넘기게 된다. 당신은 이제 이런 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세로 수용하게 된다. 감사하는 순복의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갈보리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은 여러 번에 걸쳐 “그것만은 빼고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고 외쳤을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이 당신에게 닥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당신의 눈앞에 놓여 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은 고통과 수치와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당신의 자아를 더 깊은 죽음으로 가

저갈 수 있게 된다. 그 상황을 수용하여 자아를 처리할 기회로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바로 그곳이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옛 자아를 처리하는 도구로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사용하신다. 바로 이곳에서 당신은 자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배우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을 당신이 수용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불행, 질병, 재난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어 우리의 자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끌고 다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의심을 받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혹은 굴욕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 움츠러들지 마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상황에 당신 자신을 노출시키라.”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따라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상황을 당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라.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목숨을 내어놓으라.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겨우 참고 견뎌 보려고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 놓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굴욕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건강상 약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나약함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을 당신의 야망과 자만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써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는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가 심히 곡해되고 당신의 선행이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구세주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너는 기뻐하고, 기뻐 뛰라.” 그러나 당신은 기뻐하기 전에 그 상황을 수용하고 못박혀야 하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짊어졌고 현대주의에 물든 제도권 교회를 떠났으며 “그의 수치를 지고서 영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그는 박해를 받았고 “제 혼자만 거룩한 체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다. 그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영광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지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우리가 “매일 죽는” 법을 배우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라는 주물 속으로 계속해서 부어져서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야 한다. 신비주의자였던 귀욤 부인은 이렇게 외쳤다. “오 생명이여! 그대는 많은 죽음이 없이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도다! 오, 죽음이여! 그대는 수많은 생명의 상실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The Cross of Christ)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헤겔(F. J. Huegel)은 쉐네이 스쿨 타임즈(Sunday School Times)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인용했다.

『플레밍(J. G. Fleming) 박사는 중국의 북청 사변 때 반란군들이 미션스쿨을 점령하고는 모든 문을 폐쇄하고 하나만을

열어 놓았다고 전하고 있다. 폭도들은 그 문에다가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 놓고서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고 그 십자가 주위로 돌아가는 자들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우리가 듣기로는 처음 일곱 사람은 십자가를 밟고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덟째였던 한 소녀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후의 백여 명의 학생들이 이 소녀의 본을 따라 순교하였다고 한다.』

고통, 굴욕, 불행, 죽음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밟고 감으로써 거짓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는 “경배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서 갈보리로 나갈 수도 있다. “감사와 순종의 자세로” 갈보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는 평생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네.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숨을
 거둔 곳이라네.
 잃어버림이 없이는 연음이 없으며,
 죽음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고
 믿음에 의하지 않고는 환상이 없고
 수치를 짊어짐이 없이는 영광이 없으며,
 비난을 받지 않고서는 의로움이 없다네.
 그 영원한 수난은 이렇게 말한다네.

영광과 능력과, 명예를 포기하라.

당신은 “매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당신은 내일도 그렇게 행할 것인가?

chapter 20 십자가와 성취1

옛날에 스미스필드 광장에서

순교자들이 화형에 처해지던 장면을 바라본 한 소년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이봐, 애야 어째서 그런 곳에 갔었느냐?” 그 소년은 어린양을 진실로 따르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했다. “저는 그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피의 여왕” 메리가 복음 전파를 금지했을 때 로랜스 샌더스(Lawrence Sanders)라는 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찬슬러(Chancellor) 경 앞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환영하노라. 그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죽는 법을 배웠도다.” 그는 자기가 묶여 태워질 말뚝을 붙들고서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영원한 생명

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순교 사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세상 이야기 같고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영원한 열정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린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면, 그 십자가에서는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박히는 사건도 발생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내적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신 십자가와 분리시킬 수 없다. 만약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는 아무 십자가가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워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고 죽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왔을 당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십자가뿐이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담긴 더 깊은 뜻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즉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사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다. 바울은 “우리가 전해 받은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옛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짐으로써, 다시 말해 십자가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진리는 우리로 새로운 모습이 되도록 해 준다. 즉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

히신 분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곳에서 실패하고 만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자신을 간주하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성취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는 이제 지나간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과 평생 동안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매일의 체험 가운데서 그분의 고통의 친교를 통해 그분을 알아 가야만 한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틀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 안에 내주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에 못박힌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십자가의 치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딤후3:12).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빌2:5).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태로 계시다가 자신을 비웠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는 종의 형체를 취하였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당신은 어린양을 따르는 자인가? 그분의 길은 자신을 비우는 길이요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길이었다.

스승의 법은 제자들의 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주는 이 땅에서 참아 내셨다.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그렇다면 내가 평안히 앉아서
자신을 즐겁게 하며 쉬어야 할까?
그분의 나약한 제자로서
나는 왜 그분처럼 살고 죽지 않는 것일까?

오 선생님, 나는 당신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명예와 집을 내가 지오니,
당신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하나이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복 주소서.
당신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드느
아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저주하소서.

- 찰스 웨슬리(목사)

위대한 캠브리지 대학의 설교자였던 찰스 시므온(Charles Simeon)은 십자가의 틀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당한 박해를 통해 얻은 승리의 교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박해를 당하고 난 후, 고난 속에서 손에 신약 성경을 들고서 방황하며 걷고 있었다. 나는 책을 펴면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절을 찾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시몬이란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마 27:32)였다. 시몬과 시므온은 같은 이름이다. 이 사실은 나에게 실로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내 위에 십자가를 지고

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이었다. 그 한 구절로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나는 그때 기뻐 뛰며 노래를 할 수 있었다. 그분의 고통의 친교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여, 그 십자가를 제 위에 놓으십시오. 저에게 놓으세요. 주님을 위해 제가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해를 왕관으로서 내 머리 위에 쓰고 갈 수 있었다!』 (Two-Fold Life 에서 A. J. Gordon 이 인용함)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승리요 영광인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끝장내어야만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쁘게 내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의 머리에 묶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낮추며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용기 있게 희생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며, 타협하지 말고 불평 없이 우리의 일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자.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로 가져가서 새로운 자유와 부활의 능력을 얻도록 하자.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만난 순간 거듭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위대한 고통의 사도의 삶을 살았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핍박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빌3:10). 고든 와트(Gordon Watt)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즉 십자가의 긍정적인 측면(생명과 부활)과 부정적인 측면(죽음과 고통)을 균형 있게 전파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 버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을 이루는 비율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맞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관한 한 바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바울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 왔다. 그러나 바울은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위해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이미 얻었다(성취) 함이 아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교를 갖고자 한 바울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바울은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일치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C. A. 폭스(Fox)는 이 진술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부활의 생명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다시 십자가로 되돌아가려 하는 현상”이라고 평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죽음의 연합을 맛보지 못한 채로 천상에만 앉기를 온갖 결심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죽음에 일치”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체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는 “나약함을 통해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나약한가? 아니면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는 내려놓고 계속해서 능력만 달라고 간구하는가?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힌 자”로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임을 당신은 모르는가?

-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피해야 하겠는가?
- 나는 내 자신을 주님처럼 기꺼이 허비하는가?
-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일에 대해 그분의 형제들인 우리처럼 되셨다. 나도 나의 형제들의 비참한 상황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은 적이 있는가?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이다.
- 나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다. 그 누구에 의해 나도 그와 같이 취급 받았으나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 그리스도께서는 범죄자들과 함께 분류되셨다. 그는 자원하여 그렇게 되셨다. 나는 더 나은 교제 모임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급 사교계는 거짓 모임이다.”
- 그분은 스스로 명성을 포기하셨다. 나는 명성을 추구한 적은 없는가?
-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당신은 구경거리가 되기를 회피하지 않는가?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수치를 세상의 미소와 종교계의 존경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영문 밖에 있는가 아니면 성읍에서 유명인사로 평가받고자 하는가?
- 주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렇다

면 나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여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그 이상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가?

- 예수님께서서는 평생 동안 십자가의 고통과 고뇌와 통증을 느끼셨다. 우리는 진짜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단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만 하거나 설교만 하는가? 한 공산주의자가 한 목사에게 신랄한 냉소를 퍼부었다.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목사들은 그 위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말을 반박할 도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그분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세상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볼 수가 있다.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해 묻고 있다.

“누가 세상과 세상의 칭찬과
모든 풍습과, 유행과, 법률과
십자가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에 맞서
죽기를 사모하기까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질문에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만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Yes”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chapter 21 십자가와 성취2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에 관해 말할 때, 대개 커다란 것만을 생각할 뿐 경건한 만족 같은 조그마한 일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배정하신 장소나 환경에 대해 사소하다고 여기고 불평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십자가를 부인할 수도 있다.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간증으로 승리의 삶을 제시해 준 바 있는 귀용 부인은, 한때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 그 후 그녀는 원래 거처하고 있던 호수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자기가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집에 대해 귀용 자매는(그녀는 French Society 소속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은 매우 가난한 집으로 보였다. 부엌에만 굴뚝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통과해야만 방으로 갈 수가 있었다. 나는 내 딸과 하녀에게 큰방을 양보했다. 나에게 배당된 방은 매우 작은 것이었다. 나는 그 방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해야 했다. 그 방에는 작은 침대 몇 개 외에는 아무런 가구가 없었다. 나는 값싼 의자 몇 개를 샀고 필요한 그릇들을 조금 샀다. 나는 금속 접시보다는 나무로 된 것을 좋아했다. 이 오두막집에서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낀 적은 없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박함과 단순함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음 편지는 죄로 만연한 현대 사회로부터 놀라운 해방을 체험한 바 있는 우리 학교 출신의 한 그리스도인 자매에게서 온 편지이다. 이 편지는 졸업을 1년 앞두고 질병 때문에 요양소로 떠나게 된 그녀가, 그 요양소에서 동료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 안에는 십자가의 원칙들을 보여주는 깊은 영적 통찰력이 담겨 있기에, 길긴 하지만 인용하고자 한다.

『오늘은 “네 십자가를 지라”,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 에 관해 묵상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내 생각에는 때로 서로 혼동되는 것들이다. 나에게 편지를 하거나 직접 문병을 하는 친한 친구들은 “오, 불쌍한 친구야, 네 십자가가 매우 무겁겠구나”란 식으로 자주 말하곤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매님,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통 당하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러한 위로의 말들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되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나의 병이 심지어 내 육체의 가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가시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나는 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이 질병은 나에게 복이었다. 이것은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선택에 의해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이름을 위한 고통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내 병은 나에게 복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구절을 아무데서나 뽑아 그것을 제멋대로 아무 상황에다가 마구 적용하는 것 같다. 이런 짓을 볼 때면 때로 화가 나기도 한다. 한번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부인으로부터 실로 “낙담케 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내가 “이곳에서 홀로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나는 큰 소리로 외쳐 그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 “나는 나의 병으로 인해 그 어떤 십자가도 지고 있지 않으며 나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면 우리의 머리를 들고서 우리의 희생 정신에 대해 갈채를 기대한다. 아니면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내 십자가는 무겁도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지고 가겠다”라고 마

음먹는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가시”가 아니다. 십자가는 가시와는 다르다. 십자가는 훨씬 쉽게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피할 수가 없다. 때론 건강 악화가 가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밀턴에게는 눈이 먼 것이 가시였을 것이다. 내가 앓는 질병이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된다면 나는 이것을 나의 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요양원에서 퇴원한 후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가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장애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며 기쁘게 지고 가려는 그 어떤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며, 십자가는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쓰라린 일들을 달콤하게 만들어 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더해지는 보너스 복이라고 생각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인용 끝)

이 편지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유익을 끼쳤다. 육체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녀는 그녀의 장애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였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조차 완전히 잊고 있다. 십자가는 그녀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사무엘 러더포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쳐 보

있던 집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새에게 날개가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돛이 배에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십자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십자가는 나를 내가 가야 할 항구로 데려가는 안내자였던 것이다.”(러더포드) 독자 여러분은 이 자매가 놀라운 영적 성숙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경고가 될 것 같아서 밝히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당시 그녀는 건강이 상당히 좋아져 있었는데 그녀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십자가의 삶과 옛 습관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과거로 되돌아 가 버렸다. 따라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결단과 체험 뒤에도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의 고통의 친교”를 알기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가야만 하며 “그분의 죽음에 일치”하기까지 계속 전진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가야 할 길이다.

독자 여러분에게 다소 재미있는 실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번은 한 선교 단체 지도자가 수치의 길을 택하기로 작정한 어떤 젊은 설교자를 선교지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필자의 친구 한 사람이 그 지도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당신은 그 젊은 설교자가 엄격한 죽음을 맛보지 못한 채로 사역지로 간다는 것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시체를 낚아채는 일과 같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에게로 가야 합니다. 무덤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영구차가 따르지 않는 장례는 안 됩니다.』

훗날 이 젊은 설교자는 사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제 나는 엄격한 죽음을 완전히 맛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내 친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 설교자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 주게. 그리고 그에게 장례식에서 시체가 시체인 것을 모르는 자는 그 시체 자신뿐임을 말해 주게. 이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것일세. 5000년이나 된 미라도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네. 만약 시체가 자기가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죽지 않은 셈이지. 맥박을 짚어 볼 필요도 없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실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음을 알고서 우리의 눈을, 우리와 그분이 죽음 안에서 하나 된 사실에 고정시킬 때이다. 우리의 승리의 기반은 결코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됨이다.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산 자”, 즉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있는 자들이다(사는 것이 죽음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타락한 천사들에 관해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천사들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자기 자신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때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자. 우리가 아닌 주님을 쳐다보며 나아가자.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룩하는 길은 “그분의 죽음에 일치”하려는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chapter 22 십자가와 사탄

필자의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은, 본 장의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조명을 줄 체험을 한 바 있다. 그의 이름과 선교지는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때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애에 커다란 시련을 허락하시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가 돕고자 하는 자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살하고 말았다. 내 친구는 수많은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슬픔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비록 그는 구원을 받아 있었지만 두 마음을 품음으로써 완전히 패배 당하고 말았다. 그는 아들의 살해범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온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등을 벽 쪽에다 댄 채로 패배하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삶은 “자연인”의 삶과 같았다. 그는 이제 그의 원수를 사랑하고, 죽음보다도 더 큰 상처를 안겨 준 그 일에 대해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그저 “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노라”고 절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고 계신다. 나는 나의 구속주께서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든 나를 끄집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은밀한 확신과 절망적인 희망(이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이었다)으로 인해 완전한 절망과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사탄은 한때 나에게 자살하도록 미혹하였었다. 이 사건은 결국은 나에게서는 선을 이루었다. 나는 사도들 중 한 사람 역시 형제들을 돕기 전에 사탄에 의해 키질을 당했었음을 기억했다. 이 어마어마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꼴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크게 놀란 것은, 이와 같은 지옥의 화신들이 내 안에서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내 자신의 육신적 성품과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스스로 대적을 불러들인 셈이었다. 나는 “자아”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유일하고 분명한 해결책이었다. 이외에는 결코 승리가 보장될 수 없었다. 이들 어두움의 권세들은(이제 나에게 마귀들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실제적인 분이신 것만큼 실제적인 존재가 되었다) 나의 은밀한 이기심이 제공해 준 요새 위에 굳게 서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에게는 대항하고 적군에

게는 홍수처럼 밀려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왔던 나의 자아 생명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본디 위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비로소 그 엄청난 의미가 내게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나에게 마련해 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그 순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무덤 위에 나의 옛 생명 즉 옛 사람을 묻는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의 군대들은 내게서 물러갔고 완전히 축출되었다.』

이 사람의 체험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성도들이 마귀와 그의 역사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과, 성도들의 내면에서 자아와의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엄청난 대적을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과 원수와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강하지만 보이지 않는 원수가 높은 처소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들에 대적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와 같은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악한 현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함으로써,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력해

질 수 있는 법을 보여준다.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난 후에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곳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대체하시고 내란을 끝내시게 되어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있나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된다)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적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사자의 입에서 혼들을 구출해 내는 용사가 된다. 다시 반복하지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앓음으로써만이 해결된다. 엡1장).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체험적으로 내주하심으로써 가능하다. 엡3장). 이 두 가지가 선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성도들이 세상이나 육신을 위해 사는 한 그는 마귀에게 그 어떤 상처도 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까지는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 위대한 성경교사는, “느슨해” 지고 난 후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다른 설교자들에 대해 “싸구려” 동정심을 표현한 바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들 설교자들은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이 성경교사는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마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그가 말하는 마귀란 도대체 어떤 마귀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윌리엄 로우(William Law)는 “자아는 죄가 머무는 거처와 좌석일 뿐 아니라 죄의 생명 자체이다. 마귀의 모든 역사는 자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아야말로 마귀가 일하는 작업장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아가 하고 있는 가장 교묘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다름아닌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내 주고 나서 마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슨 짓인가? 마귀의 교두보는 우리가 허락하는 자아의 생명이다. 자아는 결코 자아를 내어쫓지 않는다.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한다. 주 예수께서도 사탄에 대해 “이 세상의 통치자(군주)가 올 것이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노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아가 전혀 없으셨다. 사탄은 그분 안에는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실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지옥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자아는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야 사탄은 우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약4:7).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순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즉 사탄에게 성공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다. 자아가 여전히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마귀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농담에 불과하다. 순종이 없는 자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를 올바르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나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난 후에야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분과 함께 설 수 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

리스도께서 진정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사탄을 심판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십자가에 돌리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자는 심판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분은 나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 아닌가?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비극이 어떻게 그와 같은 엄청난 승리가 될 수 있는지 의아스럽지 않은가? 본서의 저자도 이 문제로 고심했다.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었다. 이런 태도는 매우 올바른 태도이다. 비록 겉보기에는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대로 믿는 것은 옳은 것이다. 살인자요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는 갈보리에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고 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 순간 열두 군단의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셨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서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사탄을 그가 있을 곳으로 보내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다. 도덕 세계에서 승리는 물질을 재는 저울로는 무게를 달 수 없다. 도덕과 물질은 다르기 때문이다. 불신자인 한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들의 신은 전지전능하다면서 어째서 마귀를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시는 거요?” 이 질문은 꽤 똑똑하고 그럴싸한 것처럼 들린다. 수많은 성도들도 이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실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사탄은 얼마 후 1000년 동안을 묶이게 될 것이나 다시 한번 “풀려나게 될 것이다.” 실로 하나님의 길은 예측 불허이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가야 할 곳은 불못이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마귀를 묶어 놓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왜? 왜? 마귀는 늘 “만약” “만약”, “왜” “왜” 라고 파고든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신뢰한다.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성도들은 이미 맛본 자들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이 그들에게 입증되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죄악을 치료하였고 그들의 삶에서 마귀의 올무를 부숴 버렸다. 성도들은 마귀는 단지 종에 불과하고 그들의 구세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희생자들은 갈보리의 전능한 이끄심을 통해 사탄의 눈앞에서 주님께로 찾아온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골2:15).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육체적인 힘의 행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모두 어린양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자. 그분은 무방비 상태로 십자가로 가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곳으로 가셨다. 주님께서서는 완전히 자아를 비우신 채 한 인간으로서 원수를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만나고 계신 것이다. 사탄은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께서는 그의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고 그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그분은 자기 연민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절하십시오 써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를 거부하셨다. 아버지 하나님마저 얼굴을 외면하신 채, 세상의 저주를 지고 가시는 그의 아들을 내리치셨을 때 그 두려운 순간에서조차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셨다. 그분의 순종은 죽기까지의 순종이었으며 그것도 십자가의 처형을 감수한 순종이었다. 그분의 승리는 그분을 온 우주의 왕좌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사탄은 더는 딛고 설 곳이 없게 되었다. 그는 갈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그는 혼들을 죽인 살인자이다.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하려고 이 세상에 온 자이다. 그는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뱀이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함께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며, 깨끗하신 분을 살해하였다.

자,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이 있게 된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쫓겨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셨다. 주님께서는 마귀들의 군대들을 괴멸하셨다. 그분은 이들을 포로로 잡으셨다.

『그렇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쟁취하신 승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세상적인 원칙과 세상의 통치자를 향한 적대적인 심판은 이미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셨듯이 십자가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도덕적 영적인 원칙들이 그 참모습을 드러낸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심판이었고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승리하신 것이다.』 (Huegel이 인용한 Mabie박사의 글에서)

우리 모두 이 어두움의 통치자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믿고 신뢰하며 이에 동참하도록 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지니고 있던 그 자를 파멸시키셨다. 그분께서는 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 노릇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구원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로 우리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

것은 우리와 대적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구속주의 상처 안에 숨어 있게 되면 사탄은 우리 발 밑에서 맥을 못쓰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지탱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자기 사역과 지금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헤겔(F.J. Huegel)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기 전에 나의 선교사역을 뒤돌아볼 때(당시 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무지했었다), 실로 부끄러운 생각뿐이다. 그 당시 나의 사역이 왜 그렇게 열매가 없었는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당시 내가 빈약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허공을 치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고 몇몇 혼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는 영적 전투의 참 성격도 몰랐고 대적의 특성도 알지 못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볼 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당시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왜 그처럼 많은 씨를 뿌렸는데 어째서 그토록 열매가 적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수 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변화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이와 같은 영적 위기를 겪게 된 이래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멕시코라고 하는 메마른 땅에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고 있다. 그때

부터 수천 명의 군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왔다. 전쟁터로 소집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사탄의 권세 또한 무시무시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전진하였다. **“용사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끌려간 포로를 건져 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도 빼앗아 오고 무서운 자들의 탈취물도 건져내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네 자녀들을 구원하리라.”**(사 49:24-25). 이 하나님의 사람은 수많은 혼들이 영원토록 버림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좁은 속 안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간혀 버리신 경우가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멕시코에서의 체험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눈을 뜨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깃발을 높이 든 군대처럼 강력”하게 되기를 열망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저귀를 벗어버리고 영적 전투에 참여할 만큼 성숙하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교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군대로서의 모습이다. 교회의 활동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상징들 가운데 선한 군사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고 항상 군인이어야 한다. 그는 민간인으로서의 세상적인 삶을 끊고 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딤후2:4). 군인은 항상 거칠고 치열하며, 목숨을 건 전쟁에 종사하는 자이다. 소심한 겁쟁이들만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바울은 군사 용어를 사용하였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자주 묘사된다. 다시 한번 헤겔(F. J. Huegel) 씨의 말을 인용해 보자.

『죽어 가는 혼들을 위한 사역은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며, 피 흘리기까지 애써야 하는 싸움이다. 바로 그 사역을 향해 십자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것은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매우 마귀적인 행동이다. 어린아이처럼 요람에 머물고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면서, 영적인 유아기를 자장가 속에서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나 많은가!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나태하지만 앓았어도 이 세상은 지금처럼 또 다른 심판을 향해 술 취한 채 굴러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요한복음 14장을 좋아하는가? 당신이 그것만 붙들고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혹시 마귀의 간계가 아닌가? 왜 기저귀를 내던지고 로마서 6장이나 마태복음 28:18-20, 그리고 골로새서 1:24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당신의 어리석은 자족감을 조각내어 줄 비슷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질책 앞에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얼마나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해방 받았고, 구속되었으며, 피로 산 바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 육신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지 아니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나서 패배한 채 서서 떠내려가고 있다. 완전한 패잔병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오 주여, 얼마나 더 이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멈추어서 얼굴을 들라. 그리고 “세상”과 “육신”에 못박았음을 선포하고 해방 받으라. 마귀가 심판 받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도 못박혔고 그리하여 위대한 승리가 주어졌음을 주

장하라!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갖춘 셈이다.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계12:11)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무기가 된다. 우리는 대적을 묶고 허를 찌르기 위해, 그리고 그의 불화살을 꺼 버리기 위해 주님의 피를 의뢰한다. 보혈 앞에서는 마귀가 설 수 없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증거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만이 뱀을 죽일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마귀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미 “죽음”에 서있다. 이 죽음 안에서 사망과 마귀는 이미 제거되었고 심판 받았다. 우리 모두는 “희생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굳게 서있는 주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chapter 23 십자가와 왕의 지위

어떤 이교도 부족에서

추장으로 추대된 한 선교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형은 그가 그리스도인 추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 전에 독살 당했다. 단 10여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그 이교도 부족은 지난 경험에 의해 크리스천 추장들은 다른 추장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배운 바 있다.

“당신은 이 이교도 부족의 추장직을 계속 맡으실 생각입니까?” 동료 선교사가 물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직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독살을 당했습니다.”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독살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족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지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한 채 그는 추장직을 수락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막10:44) 왕의 지위는 희생적인 봉사 정신을 먼저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인 삶에서부터 왕이란 지위는 생겨난다.

대시인 호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왕들은 백성의 목자라.” 실로 멋진 말이다. 참된 목자만이 참된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목자가 되지 못한 왕은 왕이라 할 수 없다. 왕의 권위는 양을 돌보는 사랑 위에 근거한다.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왕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인 것이다.

첫 번째 아담은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는 왕으로서 창조된 것이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합당한 왕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은 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말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죄 아래로 팔리고” 만 것이다.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 만 인간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었다. 자아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자아가 퇴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아보다 더 강한 왕이 와서 자아를 퇴위시키고 통치하기까지는 인간은 자아 중심적인 삶을 결코 치료 받을 수 없다.

자아에 의해 지배 받고 있는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자아, 그대는 나의 가장 큰 배반자
나의 가장 거룩한 친구이자 가장 치명적인 원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방해하는 장애물.

- 크리스티나 로세티(Christina Rossetti)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규율을 새로 부과할 것인가? 자아에 간혀 있는 인간을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해야 그 묶임에서 분리하여 그를 침탈하는 자로부터 끊어 버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인간을 자아에 대해 죽게 만들 것인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자랄수록 단순한 능력과 거친 힘은 하나님에게는 부차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면 세상들은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것처럼 힘이 세신 분이건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신중한 방법을 쓰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영원히 버리도록 인간을 인도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해방 받아야만 한다. 강제적인 힘에 의해 억지로 믿고 억지로 복종한다면 그것은 창조주께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다.

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지혜여
모든 것이 수치와 죄였을 때
두 번째 아담께서 싸우시려
또한 구원하시려 오셨다네.

- 뉴먼(Newman)

이 새로운 아담은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로 오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셨다. 그분께서는 죽으러 오셨고, 반역자들을 화해시키려고 왔으며, 인간을 자아로부터 내려뜨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오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최고의 영광의 왕좌”로부터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완전히 자아에서 벗어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자원하여 죽음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으로써 교만의 통치를 영원히 끝장내셨다. 그분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으며 십자가를 왕관으로 여기셨던 것이다. 그분은 이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분의 뜻은 죽음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신 것이다. 그분은 죄를 짓기보다는 죽음을 택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죄에 대해 죽으셨다. 갈보리라고 하는 신성한 시련의 불 위에 복종하고 승리하는 생명을 새겨 놓으신 그분이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신다. 인간이든 마귀든 간에 자아의 생명은 영원히 정죄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에 근거해서 인간을 다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강요하시지 않는다. 다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섣덕”하신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자신의 교만을 버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서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거부함으로써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다른 도리가 없으시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철장”이 동원된다. 이것이 하늘의 신성한 규율이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의 원수들은 흙의 먼지를 핥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포로를 잡으신다. 갈보리는 이 세상의 모든 왕좌들의 권세를 없애 버린다. 이 지상의 그 어떤 권세가 인간의 자아를 왕좌로부터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을 이 세상의 야망에서 끌어내릴 권세가 지상에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십자가로부터 다스리신다. 이 세상 왕들은 눈짓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죽이신다. 그분은 인간을 그의 교만에 대해 죽이시며 모든 다른 이기적 욕망에 대해 죽이신다. “십자가가 한 성도의 생명을 붙들 때 왕께서도 자신의 신하의 심장을 결코 붙들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 혼의 이기적인 욕심을 끝장내는 심판이었기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Huegel) 이와 같은 사랑 이외의 다른 사랑들은 그것이 가족과 친족과 고국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사랑일지라도 저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불멸하는 뿌리가 놓여 있다.

의사들이 한 부상병의 깨진 갈비뼈 사이에서 박힌 총알을 찾아 내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 프랑스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금만 더 깊이 보십시오. 그곳에 황제 폐하께서 계시실 겁니다.” 실로 그는 그의 국왕을 심장에다 묻고 다녔던 것이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환경, 상황, 가시관...등등.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다.” 갈보리는 왕들을 재생산해 낸다. 이 왕들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왕들로 모든 상황에서도 왕의 체통을 지킨다. 순교자 스테반은 늑대들에게 둘러싸였으나 왕처럼 군림하였다. 똑바로 바라보는 그 머리

위로 쏘아진 돌들은 왕 위에 퍼부은 것들이었다. 살인자 사울은 천사의 얼굴을 지녔던 이 사람으로부터,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이 비쳐 보임을 목격했을 것이다. 환난, 고난, 박해, 기근, 벌거벗음, 위협, 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게 시험할 때, 그들은 자아가 내려온 그 왕좌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즉 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왕이 되셨는지 묻고 싶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통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슬에 여전히 매여 있는 동안에는 결코 왕의 직분을 누릴 수 없다. “죄사슬을 끌고 가는 자는 도망칠 수 없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인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기도하는 하이드(Hyde)”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한 나머지, 심장이 잘못되어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캘커타의 한 옛 친구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결국은 사형에 처해진 순교자의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너무도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느라 기도의 부담으로 인해 심장이 잘못되어 때이르게 무덤으로 가게 된 순교자의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도다.” 이에 대해 인도의 또 다른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친구. 그 죽음은 때이른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향하는 죽음이었소.” 존 하이드는 그의 생명을 인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조용히 그리고 자원하여 바치었다. 누가 그의 뒤를 따라 왕관을 얻을 수 있을지?

주님 저로 포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해방되겠나이다.
나의 칼을 포기하도록 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승리자가 되리이다.

나의 뜻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신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때까지.

그것이 군주의 왕좌까지 이룬다면

그것은 왕관을 포기한 것임에 틀림없나이다.

chapter 24 십자가와 왕관

과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박해했을 때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일부러 노력하려고 했을지라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보다 더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사태가 실은 우리에게 최고로 유익한 상황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도들이 일곱 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나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박해 받는 것, 야수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물려 뜯기는 것, 총살 당하는 것, 화형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온갖 고문에 시달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왕좌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이다. 교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보헤미아 출신의 한 귀족이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도끼로 처형이 집행되기 전에 예수회 신부가 마지막으로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부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아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소. 이제 나에게는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이에 대해 그 예수회 신부는 “그런 약속은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지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이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신 모양이구려,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성도가 된 우리는 고난으로도 부르심을 받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에게도 역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역을 완수하시는 과정에서 그 누구와 아무런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순교자로도 최초와 최고의 본이 되셨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진” 셈이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순교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자신의 고통과 영광을 연관 지으셨다. 골고다와 영광은 구세주의 생각 안에서 하나였다. 골고다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십자가는 분명히 보상을 가져온다. 영광에 앞서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에는 의가 있는 동시에 의의 왕관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시에 생명의 왕관이 있다.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과, 왕국에서 보상을 받고 왕관을 쓰는 것은 다르다. 왕관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의 몫이다. 십자가로의 부르심이 왕관으로의 부르심이란 사실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의 “저주 받으신” 왕께서는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자신의 병거 바퀴에다 붙들어 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가장 나약하고 모든 것을 잃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하고 허황한 자아를 멸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높이 달리신 그곳에서 우리의 왕께서 다스리신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께서는 “왕좌의 한가운데 서 계신 죽음 당하신 어린양”이시다. 그분의 통치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다윗이 노래 부른 그 진리
여기에서 깊이 성취된다네;
“온 땅에 주께서 왕이시라 말하라”
보라! 왕께서 십자가에서 다스리시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순”으로 인해 -물론 겉보기로만 그러한 것이지만-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왕이신 메시아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와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가 두 분으로 따로 존재하기라도 한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풀리게 된다.

십자가는 다만 속죄를 위한 것뿐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말고 그 누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실 자격이 있단 말인가? 머리와 지체는 하나이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교리와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의 인내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힘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금하시고 아울러 십자가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금하신다. 제자는 그의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남겨두신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다.

피어슨(Pearson) 주교는 기독교의 교리들은 본질상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1.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를 정죄한다.
2. 기독교는 육신과는 맞지 않는 명령들을 요구한다. 즉 원수들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라.
3. 기독교는 믿어지지 않는 약속들을 제공한다. 이 세상에서는 성취될 수 없고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부활의 기적에 근거하는 약속들이 한 예이다.
4. 기독교가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박해”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근거 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성공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제시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모든 원칙이 분명히 보여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그를 따르는 우리들이 지고 갈 십자가)에서 “해 아래의 삶”이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 버렸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홀로 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포기하고 “잠시 동안” 고통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AD 100년경에 살았던 한 이교도 루시안(Samosata 출신의 Lucian)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박혔던 그 위인을 아직도 경배한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산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며 많은 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십자가로 인해, 기독교가 이방 종교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두려운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을 근심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만들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과 고문과 죽음 속에서도 무모하게 목숨을 내놓았다. 이들 성도들은 완전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에 타락한 이 사회의 관습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 가증스러운 “제 삼류 인종”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똑똑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굴욕과 하늘나라의 의복으로 옷을 입었고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영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교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교리의 진면모가 보이지 않고 주술적인 능력이라도 지닌 것으로 보였고, 일면 전염병이나 열병처럼도 보였다. 일단 순진한 사람이 이 십자가에 사로잡히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 십자가는 그만큼 매력적이었다.

당시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었다. 그들은 왕관에 대해 너무도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십자가를 꼭 붙들었다. 그들은 죽음의 길을 택했다. 왜냐하

면 바로 그것이 생명을 향한 길이요 문이었기 때문이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서 죽음을 것처럼 가까이하는 것이지요? 너무도 죽음을 무시하는 것 아니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한 제자는 이렇게 고귀한 답변을 하였다.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생명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빌2:5)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다. 이 한가지에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본 원칙을 요약하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원칙을 실천해 보이셨다. 그분께서는 높은 영광의 왕좌에서 신격의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 오셨다. 그분은 인간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은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 죽음 또한 평범한 죽음이 아닌 범죄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 모든 일에서 자신을 최고로 낮추신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되 “최고의 지위”에 오르셨다. 그분이 낮추어지신 데 비례해서 그분은 최고로 높임을 받으셨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마음 속에 새기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을 이 보상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심어 놓지 않은 것을 어떻게 거둘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과연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될 것인가? 이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게으르고 무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보상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 “가장 좋은 은사(선물)를 열심히 사모하라.”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택하여 목표로 삼아야 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험을 견뎌내고자 하

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네. 그분의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할 자들은 그 다음이라네.” 이 고백에 있어 처음 두 구절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으나 후반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저것 골라잡는” 자들은 실은 거부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최대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낮춤은 결코 강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원해서 택해야 한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택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택할 때에만 우리에게 왕관이 보장된다. 바로 이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합당하게 고백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십자가 밑에 있는 그곳 이외의 것을 이 세상에서 사모한다면 그때 나는 갈보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멸시 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나 갖게 되는 감상적인 이야기나 아닌지? 마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철저히 가려 버렸다. 잠깐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잉태하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와, 출생지와 그의 거주지를 선택하였던 유일한 인간이셨다. 그분께서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셨다. 즉 그분은 인간의 교만의 뿌리에 하나님의 도끼를 놓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그분의 탄생에는 그분께서 훗날 가르치실 내용이 전부 집약되어 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매 단계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을 비우셨다”(Monle). 욕은 타의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셨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타적인 “밀알”로서 땅에 떨

어저서 죽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낮추심을 어떻게 바꾸셔서 그분을 높이셨는지를 보자. 그분은 저 낮고 낮은 곳으로부터 일어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니”. 그분의 이름과 명성과 지위와 통치가 최고의 위치로 높아졌다. 이 높임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자신을 먼저 낮추신 겸손 덕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그 생명을, 가장 높은 하늘을 채웠던 그 생명에다 더하신 셈이다. 이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드높이셨고 그분 안에서 많은 왕관으로 관을 씌우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영광은 그분의 높으심은 물론 그분의 깊으심에 의해서도 측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깊이가 높이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사람이신 그분의 영광에 대해 Gracey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인간성은 드높여지니 영원한 왕좌의 오른쪽까지 놓이리라. 그러나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왕좌에서도 참된 인간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분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왕좌는
영원부터 그분의 것이었네!
그런데 새로운 영광이 이마에 쓰였으니
모든 무릎이 그분께 무릎을 꿇는다네!

- F.M.Pitt

성경에 따르면 그분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다. 당신과 나는(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지만) 왕 되신 그분과 피를 나눈 의형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

동 상속자”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과 나에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요
영원하신 아들의 신부이며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이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되었는데
천사들보다 뛰어난 기쁨을 받고서
그분의 왕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니
그분의 사랑하시는 분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나의 마음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였네
악한 권세들에 의해 두려워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걸으리
신성한 궁전을 지나간다네
왕궁 안에서 왕비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내 것이 되었는데
이 세상이여, 그래도 내가 자네를 시기할 것 같은가, 어디 말해 보게
나?

-터스티젠-

고난을 받던 캠브리지의 시므온이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에 관한 구절을 성경에서 읽은 후에 즉시로 “주여, 그 십자가를 제게 얹으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받고 있던 박해를 승리의 왕관으로 이마에 묶은 것이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계3:21). 요셉은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승리자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하신 길은 그를 낮추시는 길이였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요셉은 거짓 음모와 이로 인한 투옥을 통해 낮추어졌다. 그는 전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고난을 받았다. 그는 오직 “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것이다. 그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욕과 비방과 의심과 음모를 겪었고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를 통치자로 만들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였다. 우리는 파라오와 함께 앉아서도 그를 팔아 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먹이고 돌보고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한없는 이타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배운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의의 왕관이 부여될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다(마 5:5).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기 직전 하워드(Howard)장군은 특수 사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때까지는 셔먼(Sherman)장군이 사령관으로 있었다. 워싱턴에서 군대의 인사 조치를 조정하고 있던 사령관은 하워드 장군을 불렀다. 그는 하워드에게 다른 장군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그 부대의 책임자로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워드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명령 하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부

대를 지휘해야 하는데요.” 라고 말했다. 이에 서먼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오, 당신이 조지아 주와 캐롤라이나 주에서 부하들을 지휘하셨으니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워드 장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 실망도 잘 참아낼 수 있지 않소.” “당신께서 그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신다면 답변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으시지요.” 이에 대해 서먼 장군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좋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맡도록 하겠소. 그러나 당신은 9시에 나에게 보고를 하게 될 것이며 전군의 책임자로 내 곁에 앉게 될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춘 성도들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다. 자신을 낮추는 모든 일, 자아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조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든 결단-그것이 자기부인이든, 굴욕이든, 고통이든, 분리가든, 슬픔이든, 고난이든, 비방이든, 모욕이든 간에-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아래로 우리를 이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계22:12). 그분의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의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우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십자가를 만들 만큼의 나무이면 충분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내려오소서! 상처받으신 성전이시여 왕관을 쓰소서! 상처 입은 손이시여 홀을 불드소서! 상처 입은 발이시여 왕좌의 발판을 밟으소서! 이는 왕국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십자가에 못박혀 태어난 자들이여, 이는

메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기 위함임을
잊지 맙시다.

네게는 상처 자국이 없는가?
네게는 흉터가 없는가?
발과 옆구리와 손에 숨겨진 흉터가 없는가?
나는 네가 그 땅에서 강한 자라 칭송 받는 것을 듣노라.
나는 사람들이 너의 빛나는 별을 보고
만세 부르는 소리를 듣노라.
네게는 흉터가 없는가?

네게는 상처가 없는가?
그러나 나는 활로 상처를 입었고 지쳤으며
죽기 위해 나무에 매달렸도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짐승들에 의해 찢겨서 기절했도다.
그런데 네게는 아무 상처도 없는가?

상처도 없고 흉터도 없는가?
그러나 종은 주인처럼 돼야 하고
나를 따르는 발은 창에 찢린 발들이라.
그러나 네 것들은 온전하니,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가
어찌 나를 끝까지 따르겠는가?

- 에이미 카마이클



chapter 25 십자가와 방법론

필자의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이 진행되던 어떤 지역이 있었고, 거기서 선구자 역할을 한 선교사가 계셨다. 당시 선교 당국에 서는 초기의 모든 장애물을 헤쳐 나가면서 이 지역에 복음부터 전파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부터 세워서 자라나는 세대를 키워 그 학생 중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학생들을 통해 그 나라를 복음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엔 후자를 선택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은퇴한 그 선교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오늘날 와서 보니 너무 늦긴 했어도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 나라에서는 복음이 완전히 묶이고 말았다. 전자 계획을 따랐더라면 박해가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피 흘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쯤은 구름이 걷히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메시지는 물론 우리의 방법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메시지는 정통을 유지하면서 방법론만 십자가를 부인하기란 너무도 용이하다. 제아무리 천하를 뒤흔들어 놓고 세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린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충실히 따른 어느 무명 선교사보다도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다. 우리는 그의 무덤 앞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는 모든 계획들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여, 우리를 위대한 밀알 되신 그분과 일치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 자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인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들의 임무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옛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동시에 줄 수는 없다. 우리의 최고의 임무는 전심으로 복종하고 순복하는 자세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슈를 창조해 내야만 한다. 우리는 사람들로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죽음, 하늘과 지옥을 보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답변은 긍정(Yes)이든 부정(No)이든 나와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중립적 입장이 아닌 어느 한 결정이든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관할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날 복음은 이 권세를 잃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박힌 손에 의해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복음의 대사로서 우리가 지닌 권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복음이 혼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전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만을 기름 부으실 수 있다. 한 나이 든 군인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보적인 자세를 지닌 채로 나에게 오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싶다.”

꺼지지 않는 열심을 갖도록 해 주는 두 가지 강력한 동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고후 5:11-14) 바로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 동시에 성경적이며 신성한 순서이다. 바울은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 두려움과 연민에 의해 행동했다.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은 순서가 다시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설교는 너무도 “사랑스럽다.” 우리의 설교는

그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의 길만 밟고 있는 셈이다. 노아의 날들과 동일한 이 세대는 더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도피시키기 위해 “두려움”에 의해 행동했다. 우리는 매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두려움”이 무려 60-75%로 나타났다. 나머지 동기들로는 평화, 기쁨, 안식, 해방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0% 정도가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100명의 대상 중 단 한 명도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66%는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20세기의 감상주의에 입각해 “사랑”만을 외쳐대서는 안 된다.

바울은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권고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서를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1순위는 사랑스럽게 혹은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임을 염두에 둘 것).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 눈물 어림, 다정함 이 두 가지가 초대 교회들로 하여금 “저 세상”에서 온 “침입자”들처럼 강력한 주

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들은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께로 이끌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라” 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고 있었기에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하였으며, 사랑과 건전한 영으로 진리를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영으로 제시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는가? 그들이 무력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도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것은 놀랄 일이 못 된다. 이들 주님의 “침입자”들에 대해 A. J. 고든(Gordon)박사가 증언한 바를 들어 보자.

『이들은 세상으로부터의 도움과 통치자들의 후원과, 재정적인 채무와 세상적인 방법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이는 그들의 왕을 세상과 타협시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 침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지로부터 유지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도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령관의 리더십을 더 신뢰하였다. 이것은 이교도들을 매우 당황하게 하였고 화가 나게 했다. 사실 이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내버리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들과 친구가 되고자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수용하고 불평을 안 하며, 타협을 안 하고 담대하고 철저하게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거부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권면하며 동시에 경고하건대, 독자 여러분 중에는 육신적인 방법을 버리고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무수한 고뇌와 내적 갈등을 통과해야만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방법”에 관한 한 십자가 대신 여러 위원회의 결정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기 자랑, 으스스 대기, 혹은 자기 선전 등에 빠져 결국에는 십자가가 삶에 적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회중들의 세속적인 모습 뒤에 십자가를 적용하기에 앞서, 당신 자신부터 먼저 “육신에 대한 신뢰”를 전부 포기하여야만 한다.

좀더 담대하게 말해보도록 하자. 솔직히 말해 나는 평범한 사역자들을 괴롭히는 비극적인 문제에 대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노선을 걷고 있다. 실로 가장 비참하기 그지없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통은 거의 없다. 우리는 많은 일을 했으나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을 거부한 채 너무도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그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신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당신은 사울처럼 자신의 왕국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십자가를 붙든 사역자보다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당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구했을 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마저 그 생명을 잃은 셈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평안도 망치기 때문이다.

당신의 문제는 십자가를 당신의 유일한 영감과 유일한 매력으로 붙드는 대신, 당신의 목표 자체에 모든 것을 바쳐왔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역을 일으키는 데 야심을 품었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당신은 예수그리스도를 이용했던 것이다. 당신의 육신적인 야심과 육신적인 계략들을 잘라내려고 결심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너무도 두려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때부터 당신은 달라진다. 당신은 바보와 광신자로 간주될 것이다. 당신의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들,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낮출 때 당신이 겪게 될 수치는 작은 것이 결코 아니다. 동료 사역자들 앞에서 당하게 될 경멸은 또 어떠한지, 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당신을 어떻게 위로해 줄지 알고 있다. 자, 힘을 내라. 일단 당신이 하나님의 용광로의 불 안에서 빚어지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종교적인 자아의 냄새를 더 풍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식주의, 냉랭함, 육신적 완고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옛 가족에다 새 포도즙을 담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죽음을 맞이하라. 무엇보다도 “죽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 겉치레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중단하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라. “효과적인 독특함이 비효과적인 평이함보다 천 배나 낫다.” (D. M. Thornton) 온전하지 못하고 반쯤 품은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산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수치요, 하늘의 슬픔이며 지옥의 경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완강한 마음과 자기의지로 가득 차 있다면, 업햄(T. C. Upham) 주교의 충고를 듣기 바란다. (그는 지난 세기에 살았던 사역자요 신학자였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데 게을렀고 마땅히 순복하기를 꺼려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고 의도하셨으나 그들의 내적인 구속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들은 우선 한 가지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주었으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유업으로 갖고 싶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뭔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게 틀림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우상들을 동시에 갖고 싶어하는데, 이는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런 상태로 머물러 꿈쩍달짝 아니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그들이 친절한 방식으로 배우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그들은 두려운 방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섭리의 칼, 성령의 칼이 그들과 세상을 묶어놓은 모든 줄을 다 끊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건강, 그들의 친구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앞에 추락하고 말 것이다. 자기 사랑과 교만으로 살았던 속 사람은 먼지처럼 안팎으로 떨어버리게 될 것이다. 불로 태워지고 물에 휩쓸리며, 깔여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며,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불 같은 시련을 통해 그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선택하신다. 이와 같은 지도자들은 어떤 인간이나 인간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공회도, 대회도, 노회도, 학교도 그런 사람을 양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신다. 이것은 사역자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전위대로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단순하고도 진지하게, 심령이 가난한 혼들에게 권면하고자 한다. 포위된 가운데서 혹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군인들처럼 영적인 자유를 갈구하라.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 앉아서 대가를 계산해보라. 당신의 삶과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날카로운 날이라고 느껴지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오늘날 가장 부족한 것은, 거룩한 해방을 가져다 준 내적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해방이다. 이 영적 해방이 없이는 큰 자나 작은 자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저 없이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다(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해방 대신 육신적인 경박함만이 난무하고 있다).

초기 시대의 교회가 전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았을 당시(행 4장)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영적 담대함이란 다른 아닌 주저 없는 복음 전파였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로움이 있다. 이들 어부들에게는 십자가가 실제적이고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못박혔고 결국 자아로부터 해방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입을 열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다. 종교인들은 진노했으나 이들 그리스도의 포로들은 자유로웠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육체에게도 아첨하지 않았고 그 어떤 육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초기의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서 초대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위선자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조심하여 더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은 더욱 위험스러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에 몹시 기뻐하셨고(그들의 기도는 담대함과 비타협적인 영으로 드러졌다.) 이에 온 회중 앞에서 집이 진동하도록 하심으로써 응답하셨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목표도 주장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살아 계신 머리셨다. 그들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안중에 없었다. 그분은 최고로 나약함 가운데서 죽으셨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되든 간에 그들은 사람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 밖에 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늘에 그들의 운명을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서 전파했을 때, 십자가의 말씀이 양날 선 칼처럼 그들의 “마음을 찢어왔던 것이다.”

날카롭고 천상의 기질을 지닌 양날 선 칼.

그 상처 또한 이중적이로다.

이 칼날이 번쩍이는 곳에는

죄에 대해 탄식하는 모든 자에게

죄에 대한 죽음과 생명이 있도다.
칼이 번쩍이자 싸움은 가라앉았고
전쟁이 있었으나 그 속은 화평이로다.

육신을 자랑하고 모두가 능력을 경배하는 요즘 세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기는 의인화된 “어리석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바울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1:27-29). 바로 이것이 찰스 폭스(Charles Fox)가 “인간의 나약함을 줄이는 하나님의 나약한 부대” 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다. 이 군대에 입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 그분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어리석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약하다면
하나님의 명예 이외의 그 어떤 명예도 갖고 있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낮아져 있다면
그분의 발 밑에 머물러 있을 만큼 충분히 멸시를 받는다면
그분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격려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받은 “가난한 자들”에 속해 있다. 바울은 이

렇게 말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경멸 받기조차도 합당치 않은 그런 미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 어리석음, 무의미함, 심지어는 덧없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중요하게 간주하신 요소들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숨겨진 전능하심에 내어 맡김으로써 그분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미미한 것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다. 이, 메뚜기, 파리와 같은 미물은 이집트를 괴롭혔다.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치유하고 회생토록 하는데 쓰임 받은 하녀를 생각해 보라. 물 맷돌로 무장한 어린 소년이 민족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손바닥 크기만한 자그마한 구름이 엄청난 비를 가져왔다. 여리고 성은 믿음의 외침과 나팔소리에 무너져 내렸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 아이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덩이가 수많은 사람을 먹였으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35,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나팔과 등불과 향아리로 멸망시켰다. 이 모든 것과 그밖에 수많은 일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등불을 위한 향아리들-

들으라! 외침이 뻗어간다.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깨질 준비가 되어있는 자세가

주님의 도구들의 특징이니

빛나는 말씀을 운반하기에 합당한 도구로구나.

빛나는 말씀을 운반하기에 합당한 주님의 도구 중의 한 사람은 마틴 루터였다. 그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십자가의 숨겨진 말씀”안에 담겨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담대한 진리 선포는 헛된 영화를 추구하던 로마 종교를 당혹하게 만들었고 생명과 빛과 자유의 흐름에 불을 당김으로써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황들을 괴롭히고 있다. 보잘것없는 한 수도승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의 올바른 주장 옆에는 교황에게 치명타를 가했던 나의 비천함과 나의 보잘것없음이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교황은 ‘한날 일개 수도사에 불과한 녀석이 감히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이 장을 끝마치면서 모든 사역자, 선교사,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 모두에게-우리 중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꼭 한마디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아무 존재도 아님과, 아무짝에도 쓸모없음과,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함으로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이 불신의 시대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군대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